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2017년 가을 제148호

이화동창

신임 총장 취임축하연 /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김혜숙 총장 특별대담 / 총동창회 대바자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04



10

이화동창

2017년 가을 제148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47×63cm, 2006년)

02 **김혜숙 신임 총장 취임 축하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를 만들겠다"
04 **특별대담**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김혜숙 모교 총장 "신뢰와 정직, 진정성으로 이화의 가치를 되살릴 것"
10 **2017년 총동창회 대바자회** 오늘은 맘껏 열고 펼치리, 주머니와 이야기꽃
14 **모교사용설명서** 이화 가을 산책길 7곳
18 **총동창회 소식** 9월 대바자회 논의 및 '이화인의 밤' 날짜 변경 공지
19 **선교부 소식** 모교 학생들의 아프리카 현지 실습 인솔한 유병국 선교사 외
20 **축하합니다** 문희 동창 외
24 **모교 소식** 더 큰 세상을 향한 첫걸음,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외
27 **만나고 싶었습니다** 초전섬유·퀼트박물관장 김순희 동창
32 **나의 스승 나의 제자** 정병희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전공 명예교수와 제자들
36 **이화의 이곳저곳**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40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1급 시각장애를 딛고 영어교사의 꿈을 이룬 김태연 동창
4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들이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46 **대학(원) 소식** 음악대학 외
48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54 **지회 소식** 남가주 지회 외
63 **동창 근황** 이순희 동창 외
72 **동창이 펴낸 새 책** 『바람의 날개』 외 7권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이명실(영문 78,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임은실(국문 86)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7년 가을 148호
발행 2017년 10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7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김혜숙 신임 총장 취임 축하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를 만들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제16대 김혜숙(영문 76) 총장 취임 축하연이 7월 19일(수) 오후 6시 총동창회 주최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순영·조종남 총동창회 고문,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각 대학(원) 및 과(학부), 지회 동창 81명이 참석해 김혜숙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1

한숙영(제약 79) 문화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축하연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사진 1)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이화에서 김혜숙 신임 총장은 또 하나의 '최초'의 기록을 썼다"며 "이화의 전 식구, 즉 교수, 직원, 동창, 학생의 4자협의체가 총장 직선제를 위해 함께 모여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그 결과 이화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했으며, 총장의 연령 제한을 없애기도 했다"고 그 의의를 전했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동창은 새로운 방식에 의해 선출된 김혜숙 총장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화의 첫걸음을 되돌아



(왼쪽부터)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조종남 고문,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혜숙 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순영 고문



2



3

보는 기회이자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환영사를 하였다.

정호정(종음 91) 동창의 반주로 모교 성악과 김은희(성악 95) 교수의 축가 〈님이 오시는지〉, 〈He's Got The Whole World〉가 이어졌고,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서기의 꽃다발 전달로 축하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김혜숙 총장(사진 2)은 "이화가 어려웠던 시절 재단을 꿋꿋이 지켜 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준 장명수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한 뒤 "취임한 지 두 달 되었는데 각계에서 주어지는 미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화는 매우 유니크한 대학이며, 전 세계에 퍼진 이화동창의 잠재력이 뛰어난 만큼 이를 모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 제2의 이화 도약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순영 고문(사진 3)은 "이화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이화의 연속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1만 이화동창과 함께 김혜숙 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건배사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가 준비한 조촐하지만 성의 있는 만찬을 즐긴 후 기념촬영을 하며 김혜숙 신임 총장과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특별대담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김혜숙 모교 16대 총장 '이화'의 새 역사를 논의하다

"신뢰와 정직, 진정성으로 이화의 가치를 되살릴 것"



김영주 총동창회장(왼쪽)과 김혜숙 모교 총장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식에서 철학과 김혜숙(영문 76) 교수가 모교 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김혜숙 총장은 1976년 모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7년 모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08년 제13차 세계여성철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철학연구회 연구이사, 한국여성철학회 총무이사, 한국미학회 영미미학분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여성 최초로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을 거쳐 올해 16대 모교 총장으로 선임된 김혜숙 총장은 이화 창립 131년 역사상 첫 직선제 총장이며,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전 구성원(교수, 직원, 동창, 학생) 직선제로 뽑힌 첫 총장이기도 하다. 학내 구성원의 지지를 받으며 총장에 취임한 김혜숙 총장을 7월 26일(수) 오후 3시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이 만나 이화의 첫 출발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이화의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편집자 주

"치유-신뢰의 문화를 구축해야"

김영주 총동창회장(이하 회장) : 총장 취임 후 바쁘실 텐데 동창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1만 동창을 대표해 총동창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한 지 두 달 남짓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김혜숙 총장(이하 총장) : 평교수로서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를 해오던 사람인데 총장이 되고 보니 온갖 일을 알고 구석구석 마음을 써야 해서, 총장이 왜 총장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회장 : 이번 선거는 95.4%라는 학생 득표율이 언론에 회자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창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동창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어 참여가 쉽지만은 않았는데도 77%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선거인단 명부의 부득이한 누락 사태를 감안하면 86.3%라는 놀라운 투표율이지요. 2%라는 미미한 지분율이라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창들의 큰 지지를 받으셨는데요, 그만큼 이화 구성원들이 신임 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동창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장 : 이화는 전통 명문으로서 국내에서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니크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사태 이후 이화의 이러한 위상에 타격을 받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화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은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화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각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어서 결집된 에너지를 모아 다시 한 번 명문 이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이를 통한 화합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대학 선생님들도 이화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성의 자유 성취,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노력한 이화의 첫 출발점을 되새겨볼 생각입니다. 여성을 구속하는 요인은 무척 많지만 특히 내부적인 자기 검열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이화의 학생들이 내부적 자기 검열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착안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혁신을 통해 '미래를 향한 이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교육 환경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학생 교육, 특히 미래를 관장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양적인 승부가 아니라 질적인 승부가 필요할 때이지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회장 : 작년은 이화 창립 1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였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학내 구성원 모두 깊은 슬픔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특히 이번 총장 선거를 위해 교수, 직원, 동창, 학생의 4자협의체를 거치면서 각 단위 간 상호 오해와 불만이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단위 간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면 좋을까요?

총장 : 지난 30년 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한꺼번에 분출되었고, 분출된 욕망들이 모여 총장에게 기대하



는 바가 크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요구도 다 들을 생각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득도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대하면 대화가 통합니다. 저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회장 : 총장님은 사회가 이화에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사과를 하신 바 있지요. 이번 사태를 겪으며, 혹여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이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동창들도 각계에서 노력 중입니다.

총장 : 이화가 정의를 해치는 일을 했다고, 매우 실망했다며 어느 분이 인터뷰 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화의 학생들이 이룬 열정에 박수를 보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화가 우리 사회의 정의, 특히 교육적 정의를 해친 것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화는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입시나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동창들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화가 사회에 빚진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지 여러 차원에서 생각 중인데, 그중 '서로 돕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화는 기독교 학교로서 매우 우수한 사회봉사 역량을 가졌습니다. 사회의 밑바닥,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온 동창들도 많지요? 총동창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들여와 자원봉사 단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장 : 총동창회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해마다 선정해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드리고 있어요. 선정할 때마다 후보자 모두가 훌륭한 분이라 어느 분을 뽑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화동창을 적극 후원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총동창회도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화 정신-이화의 가치를 지키며 혁신해야"

회장 : 이화는 창립 이래 131년간 여성교육의 선도자로서 한국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큽니다. 총장님이 생각하는 꼭 지켜내야 할 이화의 131년의 가치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화가 새로 정립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장 : 이화가 지향하고 있는 진선미라는 가치는 인간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추상적이기도 하지요. 이제는 여기에 더해 신뢰, 진정성, 정직성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화를

만든 초기 선교사가 보여준 진실성, 온 마음을 다하는 태도가 이화 안에 있고 그게 우리의 저력입니다. 그런 태도가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학문 연구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름길이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느리게 가는 길입니다. 정직함, 온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신뢰를 다하는 마음, 이게 올바른 여성 문화이자 이화의 가치가 아닐까요.

회장 : 지금은 여성의 역할도 달라지고, 시대정신도 많이 바뀐 게 사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이화여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총장 : 김활란, 김옥길 선생님 시절은 사회의 선구자이자 신여성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고, 그다음은 교육받은 여성, 부르주아 중산층 여성을 양성하는 데 이화가 기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업주부나 현모양처의 역할에는 충실했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을 개척하는 여성을 기르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세대는 커리어를 가진 여성이 대부분이고, 커리어가 무엇보다 필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대생은 사치스럽다고 얘기하는데 학교에 와 보세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꾸미고 화장해서가 아니라 젊음의 빛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편견, 근육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하며 이화는 이런 자주적인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땅에 뿌리박고 세계를 향해 걸어가라"는 말이 있지요. 이런 여성을 이화가 길러내야 합니다.



회장 : 역대 총장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화는 지난 131년간의 역사에서 각 총장이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여러 역할들을 해 왔어요. 김활란 총장님은 이화의 기초를 닦았고, 김옥길 총장님은 내실을 다졌으며, 윤후정 총장님은 여자대학 최초로 공대를 신설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신임 총장으로서 김혜숙 총장님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장 : 이화는 인문과 예술 분야에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혁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생각의 힘을 키우는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문과 예술 역량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것들이지요. 저는 이화가 인문 사회 공학 예술을 결합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며,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회장 : 네. 인문과 예술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 이화는 그 기반이 탄탄하지요.



총장 : 예술이나 기술 모두 '생각'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이지요. "왜"가 중요한 시대이니까요.

회장 : 인문과 예술의 기반하에서 "엘텍공대를 키우겠다"고 강조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려면 연구실 확충,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총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총장 :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Cause에 공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의 '치유기금'을 모으기 위해 SNS에 올렸더니 주말 동안 리트윗이 1만 2,000건 되었고, 약 5,000만 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Cause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지요. 억지로 하는 모금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동창들에게도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다닌 미국의 대학에서도 소액 기부자 늘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21만 동창들에게 모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알리고 소액 기부자들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비전-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여대를 만들겠다"

회장 : 이화는 1886년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화의 설립 정신과 정체성의 근간인 채플을 '자율화' 한다는 소문이 들려 동창들로서는 우려가 큽니다. 채플은 이화의 자유, 기독교 정신의 모태가 아닌지요. 학생 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학창 시절 채플 속의 하나님을 만나 큰 힘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채플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동창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용 채플, 공연 채플, 유명 인사 강연 등 채플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서 채플은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채플에 대한 총장님의 생

각을 궁금해 하는 동창들이 많습니다.

총장 : 저는 채플의 폐지가 아니라 채플을 중심으로 여러 커뮤니티를 모이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즉 학생 채플 시간에 일부 자리를 비워 놓고 동창이나 인근 주민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율화'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목실장님께도 이대 채플의 독특한 기능을 들었으며, 채플에서 헌금을 모아 아프리카 등 나라에 10여 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채플은 이화정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채플이 없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 : 매해 12월 첫 목요일에 총동창회에서도 교목실과 함께 이화성탄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 헌금을 해외 선교사에게 전액 지원하고 있지요. 채플에 대한 총장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회장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 를 꿈꾼다는 총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화여대가 앞으로 여자대학으로서 살아남을 것인지, 어떤 대체 전략을 취할 것인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장 : 여자대학으로서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증명해야 할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적 커뮤니티가 어떤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지 이화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 인력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는 개방성을 가져야 하고 대안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이런 다름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여성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환경 구축, 여성 삶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화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통-동창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

회장 : 이화의 지난 131년은 사랑과 나눔, 봉사의 진선미 정신을 이웃에게 돌려준 수많은 선배들, 동창들의 공에 기댄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총장으로서 이화동창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장 : 우리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우리를 묶는 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진짜 사춘기를 보낸 곳,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시절, 저는 교정 어느 한 곳 정겹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예전에 학관 재건축을 반대한 이유도 그곳이 제게 정겨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화를 묶는 끈은 '채플을 통한 기독교 정신' 입니다. 팔복동산에서 김옥길 선생님이 기도하시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독특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화동창들은 '이화' 를 의인화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집단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이화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만큼 모교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화동창은 '이화' 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모교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및 정리·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사진·이대 기획처 홍보팀 제공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대바자회

오늘은 맘껏 열고 펼치리, 주머니와 이야기꽃

이화의 이름으로 펼치는 풍성한 가을 축제

가을 햇빛이 따사로운 9월 21일(목), 모교 총동창회 주최 대바자회가 열린 이날 오전 8시부터 생활환경대 주변은 물건을 내리고 옮기고 부스를 꾸미는 동창들로 북적거렸다. 이곳에는 총동창회 산하 각 대학(원), 과(학부), 지회(대전, 원주, 순천, 대구, 안산, 울산, 부산) 단위로 80여 개 부스가 마련됐다. 부스는 각 대학 동창회장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배정하였기에, 품목에 따라 영역이 구획되진 않았다. 그럼에도 바자회장 출입구 가까운 곳에 사회과교육과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및 컴퓨터학과가 샌드위치, 떡, 에그타르트, 마카롱, 김밥, 파전, 커피 등 먹거리 위주로 나란히 부스를 차리면서 자연스럽게 먹거리 존이 형성되었다. 이 구역의 왕은 파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 투박하게 그려놓은 오징어와 새우 그림에 미소와 주머니가 함께 열린다. 전 요리에서 만큼은 셰프 급일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든다.



1



2



3

부스마다 아이디어 상품이 가득해서 기웃기웃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이름표를 목에 건 이가 물었다. "뭘 찾으세요?" 최인순(의직 79, 생활환경대 회장) 동창이다. "생활환경대에서는 의식주 관련해서 홈패션, 의상,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용품들을 내고 있어요. 대나무 속살로 만든 티슈는 보셨어요? 무공해 행주도 있고요. 솜씨들이 대단하죠? 올해는 특별히 김인숙(국민대 명예교수) 작가를 초청해 '구슬 정원'이란 주제로 공예 작품을 선보였는데, 오전에 김혜숙 총장님이 들르셨다가 입고 계신 옷과 딱 어울리는 브로치를 사가셨네요."

"이대 출신 농부가 지은 유기농 농산물도 만나보세요"

무용과 부스 앞을 지날 때였다. 조청에 묻힌 떡 한 조각을 입안에 쏙 넣어준다. "친구가 사찰음식 전문가예요. 바자회를 위해 특별히 부탁한 거죠." 친구에게서 조청을 얻어와 자랑스럽게 내놓은 이는 황미숙(무용 84) 동창이다.

'오직 이대에서만 BEST PRICE'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지' '가을 여행 필수 아이템'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팥빵' 등등 눈길을 끄는 광고 글귀가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대 출신 농부 7년 전 귀농, 제가 직접 농사지었어요'였다. 전남 강진에서 바자회 참가를 위해 어제 올라왔다는 박춘호(사회 70) 동창이다. "맛이 좋아서 선뵈려고요, 이렇게 사는 삶도 있다 소개하고도 싶고요."

특수교육학과 부스에는 이소현(특교 83, 특수교육학과 교수, 오티스타 대표) 동창이 나와 있었다. "솔솔 팔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동창의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예전에는 자폐인들이 모여 만든 생활팬시용품이라고 기업의 이념을 설명하며 눈길을 끌었는데, 이젠 제품 자체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분들이 많아요." 오티스타는 모교의 산학협력의 결과로 설립된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자폐장애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립 5년차를 맞았다. 정책과학



최인순 동창의 설명을 듣고 있는 김혜숙 모교 총장(가운데)과 김영주 총동창회장(오른쪽)



특색있는 글귀와 상품으로 동창들의 발길을 붙드는 각 대학(원), 과(학부), 지회 부스들(사진 1~9)







1



2



3

부스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가득하다(사진 1~6)

대학원은 유기동물을 보살피는 단체인 '파랑새쉼터'와 '행동하는동물사랑'에서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컵, 그릇, 가방 등을 선보였다. "수익금은 아이들(고양이와 개) 병원비로 쓸 생각"이라는 전혜성(법학 93, 정책과학대학원 회장) 동창의 말에서 생명과 돌봄을 생각하는 귀함을 엿본다.

철학과에서는 2017년 가을 제16호《우리는 생각한다》라는 잡지를 내놓았다. 철학과 편집부가 1980년대에 시작해 부정기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발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잡지다. 졸지에 팔게 된 것도 있다.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커피머신을 가져다 놓았는데, 손님이 머신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원두가 떨어져서 급히 주문했더니, 가격이 영 맞질 않네요." 팔아도 손해인 장사를 하면서 신나는 장인숙(철학 85) 동창의 표정이 재미있다.

국문과 부스의 천연염색과 바느질로 멋을 낸 목걸이와 브로치들도 인기였다. 남형원(국문 73) 동창의 작품이다. 비슷하긴 해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기에 손님들은 몸에 붙이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내 것을 골랐다. 파는 사람의 손도 손님의 표정에 따라 요리조리 분주하다.

총동창회도 이번 바자를 위해 남여주(서양 86) 동창의 원화(Reflective)를 모티프로 제작한 실크 스카프 3종 외에 카드 세트 3종, 스마트키링 2종, 에코백을 새로 제작해 내놓았으며, 인기 상품인 바람막이 점퍼와 동창 기증 알뜰 판매코너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다. 이중 단연 발군의 상품은 저염백명란 2종(500g과 1kg). 정오가 조금 안 되었는데도, 판매대장의 1kg짜리 백명란 옆에 바를 정(正)자가 길게 줄을 섰다. 추석과 구정 때만 만들어 나오는 물건인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이 물건을 사러 대바자회를 찾는 사람도 많다. "예전에는 동창회 바자회에서 젓갈류를 팔았어요. 그걸 사다 김장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달라진 세태를 확인한다.

따사로운 가을볕에 펼쳐진 동창들의 이야기 한마당

어느새 서너 시, 따갑던 가을볕이 순순해지는데, 마감을 하는 부스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경남 고성에서 재배한 참기름, 들기름, 들깨가루, 통깨 등 국산 농산물 4종을 판매한 행정학과는 누구보다



4


5


6

빨리 완판을 시켰다. "고향 친구가 직접 재배한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이라 상품에 자신이 있었어요. 사전에 SNS를 통해 김양희(행정 86) 전 회장과 제가 반 정도 판매를 했고, 행정학과 교수님들도 오셔서 많이 사가셨어요. 국산 농산물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동창들의 호응도 높았고요. 내년에도 이걸 판매하자고 우리 모두 입을 모았어요." 최희숙(행정 88, 행정학과 동창회장) 동창의 자신 있는 한 마디이다. 질 좋은 국내산, 시기에 맞는 상품 선정, 적극적 홍보라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경우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구슬아이스크림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들고 후문을 나서서 이대부중과 유치원 쪽에서 반액 세일을 외쳤다. "저희 참 적극적이지요? 계난경(문정 88) 동창이 기부했는데, 저희가 다 팔아보려고요." "밴드에 올렸더니, 오늘 강화 여행 가려던 동창들이 발길을 돌려 바자회로 와주었어요."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 줄 테니 오라고 공지했어요. 스물다섯 명이 왔어요. 너무 예뻐요." "우리 학과 1기인 채희군(문정 63) 선배님은 북마크와 목걸이를 손수 만들어 주셨네요." 올해 '재상봉의 해(졸업 30년 된 동창)'를 맞았다는 문헌정보학과 동창 넷이 짧은 시간 쏟아낸 이야기와 흥분은 고스란히 30년 전 교정에 쏟아지던 폭풍 수다의 풍경에 닿아 있었다. 고영자(문정 87, 문헌정보학과 동창회 부회장) 동창은 "오늘 팔러 왔지만, 더 많이 샀고요. 친구들 만나서, 후배들 만나서, 오래간만에 학교에서 너무 즐거워요"라고 바자회 소감을 정리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2017 총동창회 대바자회는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을 비롯 총동창회 임원, 각 대학(원), 과(학부), 지회 등 80여 곳에서 참여한 동창들이 질 좋은 상품을 내놓고 주머니를 열고 이야기꽃을 피운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었다.

총동창회의 김순영·윤순희·조종남 고문과 김혜숙 모교 총장이 행사장을 찾아 동창들을 격려하였으며, 각 과 동창들은 오후 5시 행사를 마무리한 뒤 뒤풀이를 통해 선후배와의 즐거운 만남을 이어나갔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올해의 이화인들과 함께한 김영주 총동창회장


특교과 부스에서 오티스타 디자인 상품들을 이소현 동창(가운데)이 소개하고 있다


남여주 동창의 원화를 바탕으로 총동창회가 제작한 스카프 3종

모교에서 걷고 싶을 때, 산책길 추천 코스 7



올 여름 찌는 듯한 더위로 몸과 영혼이 지쳤다면, 이제 풍성한 가을 공기를 만끽하며 재충전을 해야 할 때다. 제법 선선해진 바람이 코끝을 간질이는 요즘, 재충전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모교 캠퍼스 곳곳에 숨겨진 산책길을 걸어 보는 건 어떨까? 오랜만에 모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한 뒤 수다를 떨며 걸어도 좋고, 혼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빛바랜 나무 계단길을 걸어도 좋다. 또 구두가 아닌 운동화에 편한 차림으로 캠퍼스를 찾았다면 적당히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으며 가벼운 등산을 하기에도 좋은 코스가 여럿 있다. 이 가을 학창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걷기에 좋은 이화의 산책길 7코스를 소개한다.

*아래의 소요시간은 직접 걸으면서 잰 것이므로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코스 : ECC 동산

거리 : 360m / 소요시간 : 5~6분

이화의 상징이 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를 빙 둘러 가는 길. 넓적한 바닥돌과 아기자기한 나무들로 전문 조경사의 손길이 느껴지는 멋진 산책길이다. 이 길을 걷다 보면 군데군데 배치된 7~8곳의 원통형 돌 벤치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게 될 것이다. 말끔하게 다듬어진 사철나무와 아기자기한 침엽수들을 감상하거나 이화의 풍광을 사진에 담기 좋은 포토존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봄이면 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해 '이화의 봄동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2코스 : 포스코관–나무 계단–중도 서문, 포스코관–아령당–중도 서문

거리 : 245m, 300m / 소요시간 : 4~5분

사회과학대학이 사용하는 포스코관 앞 커다란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출발점으로 해서 본관 건물 뒤에 있는 완만한 나무 계단길을 지나 헬렌관 뒷길과 중앙도서관 서문으로 이어진 길이다. 일명 '포도길'이라고도 하며 특히 나무들이 터널처럼 우거진 나무 계단길에서는 가을의 운치를 맘껏 느낄 수 있다. 또는 포스코관을 지나자마자 보이는 진선미관 앞길에서부터 아령당과 총장 공관을 거쳐 헬렌관 뒷길로 이어진 내리막길도 고즈넉한 풍취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3코스 : 포스코관–교육관–공학관

거리 : 350m / 소요시간 : 6~7분

포스코관에서 붉은 벽돌의 교육관을 거쳐 공학관으로 이어지는 큰길 옆에 있는 좁은 길로 일명 '이화의 오솔길'로 불리기도 한다. 길지 않은 코스지만 나무가 우거져서 마치 숲속길을 걷는 느낌이 들다가도 돌담이 나오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양한 매력을 간직한 길이다. 나선형 돌계단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4코스 : 진선미관–이화역사관–한우리관 앞길

거리 : 240m / 소요시간 : 4~5분

진선미관에서 종합과학관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이화역사관을 알리는 이정표와 함께 넓적한 바닥돌이 깔린 길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가다 다시 우회전을 하면 계단이 나온다. 그 계단을 오르면 돌로 축대를 쌓은 돌담과 함께 이화역사관으로 이어진 길을 만나게 된다. 2006년 이화학당 최초의 한옥교사를 복원한 목조건물인 이화역사관. 아직 관람하지 못한 동창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들러 이화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다. 돌담을 끼고 쉬엄쉬엄 걷다 보면 오른쪽에 법학관이 보이고 어느덧 한우리관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에 다다르게 된다.



5코스 : 종합과학관 뒤–한우리관 앞길

거리 : 220m / 소요시간 : 6분

거리는 짧지만 산책길 중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로 등산을 좋아하는 동창이라면 한 번쯤 걸어 봄직한 길이다. 종합과학관 계단참 이화역사관 이정표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해 역사관 쪽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는 길이다. 바닥돌이 깔린 길이 끝나면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고 계단을 오르면 좁은 오솔길이 나온다. 그 길 끝에 다다를 무렵 한우리관 앞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길이라 훤한 대낮에 가 보길 권한다.



6코스 : 한우리관–법학관 뒤–중도 동문–영학관

거리 : 450m / 소요시간 : 8~9분

한우리관 앞길에서 시작하는 비교적 긴 코스로 가로수가 길게 뻗은 한적한 길이다. 양쪽의 수목을 감상하며 쉬엄쉬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법학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동문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왼쪽으로 돌담을 끼고 시원하게 뚫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중앙도서관 정문이 보일 무렵 우회전을 하면 영학관 길로 빠지게 된다. 이화동산까지 길게 이어지는 길을 걷고 싶다면 이 길에서부터 시작해 걸어 보길 추천한다.



7코스 : 대강당 계단 옆–국제교육관–이대 서문

거리 : 265m / 소요시간 : 4~5분

이 길은 대강당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권할 만한 코스다. 대강당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완만한 내리막 커브길이 나 있다.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화광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정문으로 가기가 아쉽다면 곧바로 박물관이 보이는 오른쪽으로 돌아 국제교육관으로 가는 길을 걸어 보자. 오른쪽으로 아기자기하게 박힌 바위를 감상하며 호젓한 보도블럭 길을 걷다 보면 국제교육관이 나오고 I-House와 이대 서문에 가닿는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7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이화인들을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리가 이화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동창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즐겁고 기쁜 송년의 밤입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과 함께 멋진 음악회와 풍성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켓은 각 대학(원), 과(학부) 동창회에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후 6시

장소 :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볼룸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
(지하로 오실 경우 파르나스몰 내 연결 엘리베이터 이용)
※ 행사 당일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 15만 원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 02-3277-3386~7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9월 대바자회 논의 및 '이화인의 밤' 날짜 변경 공지

9월 정기임원회가 참석 33명, 위임 7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9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안영호(중문 85)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정영출(경영 72) 회계가 보고한 6, 7, 8월 회계가 통과되었고,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안건 토의가 이어졌다. 9월 21일(목) 생활환경관과 주변에서 열리는 대바자회에 대해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이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8월 30일(수)까지 판매 품목을 제출받았고, 먼저 제출한 곳에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뒤, 부스비는 9월 11일(월)까지 접수했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행사 당일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니 참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운전 담당 및 물품 운반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해 혼잡을 피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동창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데 이어 교직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행사를 미리 알렸다"며, "대바자회는 물건을 팔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동창 화합을 위한 중요한 행사인 만큼 많은 동창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신경희(수교 77) 사범대 회장은 "총동창회에서 파는 물건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포스터나 플래카드를 제작하거나 SNS로 공지 가능한 홍보용 사진을 보내줄 것"을 제안하였다.

임산희(유교 81) 재정부장은 서양화가 남여주(서양 86) 동창의 원화(Reflective 시리즈 중 3개 작품)를 바탕으로 총동창회가 제작한 고급 실크 스카프 3종(180×43㎝: 3만 9,000원, 80×80㎝: 4만 5,000원, 200×55㎝: 6만 5,000원)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원화를 바탕으로 고급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설명한 뒤 "남 동창이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원화 사용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총동창회에서는 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실크 스카프 외에도 스마트키링 2종, 카드 세트 3종을 새로 제작해 대바자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가장 큰 행사인 '이화인의 밤' 행사가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치러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12월 4일(월)에 열린다는 것을 공지하고(장소: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 볼룸, 시간:오후 6시)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같은 주 12월 7일(목)에는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며 하반기 행사에도 총동창회 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모교 학생들의 아프리카 현지 실습 인솔한 유병국 선교사

국제 실명구호기구인 사단법인 비전케어 이사로 있는 유병국(간호 75) 동창이 순회의료 선교사로 모교 간호대 글로벌 건강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지 간호사 실습 지도를 인솔하였다.

7월 8일(토)부터 20일(목)까지 학생 8명과 함께 국제실명구호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의 국립병원 및 보건소 견학을 통해 그들의 의료환경을 돌아보고 Vision Care Camp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과 매일 아침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열악한 곳에서도 이화의 그리스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기도했다. 한국 명성교회에서 이곳에 세운 명성의과대학과 명성선교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들을 만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8월 17일(목)부터 26일(토)까지 10일간 같은과 9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실습을 하였다. 캄팔라의 베데스다 선교병원 실습 및 Vision Care Camp에서의 봉사활동은 이화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하는 좋은 실습장이 되었다. 우간다 캄팔라 한인교회 예배에서 만난 의료 선교사들과의 대화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현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동창선교사 중 기도수첩에 기록되지 않은 선교사를 만나 동창선교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문정(대학원 07) 선교사와 한명원(가관 78) 선교사, 그리고 부모님의 선교사역을 돕고 있는 정은혜(경제 12) 동창과의 만남을 통해 이화동창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서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캄퐁스프 지역 이화스렁 보건소 초대 소장된 이철희 선교사

이철희(간호 88) 캄보디아 선교사가 아시아 교육봉사회의 수련회 참석차 귀국해 8월 22일(화) 선교부 모임에 참석하였다. 2001년 캄보디아로 파송되어 16년째 헌신을 하고 있는 이철희 선교사는 2016년 10월 베사(VESA) 및 한국 신자들의 후원으로 캄퐁스프 지역에 개원한 이화스렁 보건진료소의 초대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프놈펜 대학을 졸업하여 캄보디아 언어에 능통한 그는 영육 간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현지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문희(약학 59) 동창

여성인권신장대상 수상

6월 2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주최 '2017 INAK 사회공헌대상' 프레스클럽 부문 여성인권신장대상을 수상했다. 문희 동창은 제17대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장이다.



박명숙(무용 72) 동창

성남문화재단 대표 선임

9월 13일(수) 성남문화재단 5대 대표에 경희대 명예교수 박명숙 동창이 선임되었다. 박 동창은 국내 1세대 무용수이자 안무가이다. 1978년 현대무용단 '박명숙댄스씨어터'를 창단했으며, 2013년 제58회 대한민국예술원상, 2015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장하진(사회 73) 동창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전 여성부 장관 장하진 동창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내역 등을 심사한다. 장 동창은 여성·노동 문제 등을 연구한 사회학자로 초대 한국여성개발원장을 지냈다.



박은정(법학 74) 동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박은정 동창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발탁되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동창은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법학자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염미봉(초교 77) 동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취임

염미봉 동창이 6월 16일(금) 광주여성재단 제4대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염 동창은 1991년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광주여성재단은 지난 2011년 6월 출범한 이래 여성가족정책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 여성문화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이다.



석인선(법학 81) 동창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석인선 동창이 4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석 동창은 모교에서 19년간 헌법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헌재 헌법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업무와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교육기관이다.



이선희(제약 82) 동창
식약품안전평가원장 임명

이선희 동창이 8월 24일(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및 식품에 대한 심사, 위해성 평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동창은 2000년 국립독성연구소 독성부 특수독성과장을 시작으로 안전평가관실 마약신경계 의약품과장,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기준과장, 부산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심사부장을 맡아왔다.



정혜원(의학 84) 동창
이대목동병원장 선임

정혜원 동창이 제12대 이대목동병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화)부터 2년이다. 정 동창은 1993년부터 모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산부인과 과장,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폐경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정민(경제 87) 동창
중앙일보 편집국장 임명

이정민 동창이 7월 31일(월) 중앙일보 편집국장에 임명되었다. 중앙일보 첫 여성 편집국장인 이 동창은 앞선 2013년 중앙일보 첫 여성 정치부장에 선임된 바 있다. 이 동창은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중앙일보 정치부장, 중앙선데이 제작담당 부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통일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김선정(서양 88) 동창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선임

아트선재센터 관장 김선정 동창이 7월 13일(목)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 동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하였다. 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등을 맡은 바 있어 광주 문화예술계와도 연계돼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



장규순(디대원 89) 동창
아시아미술협회 국제상 수상

동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장규순 동창이 7월 2일(일) 일본 공익사단법인 아시아미술협회 주최로 도쿄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제53회 아시아현대미술전에서 아시아미술협회 국제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7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전시되었다.



이윤정(경영 91) 동창
'2017년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 수상

이윤정 동창이 모교 경영대학 선정 '2017년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을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컨설팅그룹 A.T.커니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활약했으며, 한국존슨 마케팅디렉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글로벌 마케팅 총괄 상무를 거쳐 올해부터는 르크루제 코리아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시상식은 6월 16일(금) ECC 이삼봉 홀에서 개최되었다.



강선영(동양 01) 동창
미 '폴락 크레스너 재단' 지원금 수상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강선영 동창이 미국의 '폴락 크래스너(Pollock-Krasner) 재단'에서 지원금 3만 달러를 수상하였다.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의 사후에 그의 아내 리 크래스너가 1985년 설립한 이 재단은 전 세계 작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발한다.



이규민(경제 17) 동창
2017 입법고시 최종합격

이규민 동창이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에서 일반행정직에 최종 합격했다. 모교는 1995년 송주아(영문 95) 동창이 여성 최초로 입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현재까지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모교는 입법고시 외에도 2015년에 이어 2016년 사법시험 합격자 순위에서 국내 대학 4위를 차지했고, 2016년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고시합격자 배출에서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동창 19명 최종 합격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 38명이 최종합격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25일(금)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9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모교는 타교에 비해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절대 숫자가 적지만 매년 지원자 대비 전국 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교의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모교가 배출한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는 총 542명에 이른다.

또한 모교 경영대학이 지원하는 공인회계사반은 회계사 진출의 꿈을 가진 이화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해 시험 준비를 도울 뿐 아니라, 고시 장려금 및 합격 장려금 등의 장학금 지급과 도서 구입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동창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19명).

장은진(과교 03), 김희망(중문 05), 김민아(경영 12), 이세영(수학 13), 백록담(경제 15), 최수정(사학 15), 김선화(식영 16), 김지선(경제 16), 김나희(경영 17), 김채린(불문 17), 류연주(경제 17), 박다솜(경영 17), 손세희(불문 17), 윤여림(경영 17), 은서정(수교 17), 이미림(경제 17), 임혜리(경제 17), 정서희(경영 17), 정주연(식영 17)


백록담 동창


최수정 동창


김선화 동창


김지선 동창


김나희 동창


김채린 동창


류연주 동창


박다솜 동창


손세희 동창


윤여림 동창


은서정 동창


이미림 동창


임혜리 동창


정서희 동창


정주연 동창

더 큰 세상을 향한 첫걸음,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8월 25일(금) 오전 10시 모교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963명, 석사 859명, 박사 119명 등 총 1,9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교무위원 등 주요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 봉독, 기도, 총장 말씀, 학위 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이화의 역사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익힌 것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성으로서 자긍심을 키우고, 여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다"며 "지난해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이화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자기에 대한 성실성,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과 자기가 믿는 바에 오롯이 투신해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성실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해 주는 여성 유대, 이것이 이화를 버티게 한 가치"라며 "졸업을 맞는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헌신한 이화의 가치, 자신에 대한 성실성과 자긍심을 지키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더 큰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조언했다.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40세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국제학전공 루스탄토 스텔라 니키코(Roostanto Stella Nikiko) 씨가 최연소로 졸업하였고, 김선혜(초교 14학번) 씨가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북한이탈주민 2명과 재입학 5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장학생 3명을 포함, 가나·몽골·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일본·중국·타이완·태국·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 3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부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모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졸업생들은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모교에서 쌓은 교육 역량을 널리 펼칠 예정이다.

이화-SK-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모교는 SK행복나눔재단, SK수펙스추구협의회, 고용노동부와 8월 10일(목) 오후 3시 본관 접견실에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혜숙 모교 총장, 김용갑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혁신 인재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學)·민(民)·관(官)이 공동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SK는 모교 사회적경제 석·박사 협동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한다. 모교는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커리큘럼 설계와 운영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행정·네트워크 지원과 유관기관 협조를 담당한다.

협약식에서 김혜숙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우수한 이화의 인재가 배출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협약이 사회적 인적자원 양성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선구모델 △정부-기업-학교가 참여한 3각 협력 △다양한 전공과의 협동과정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매우 의미있음을 강조하며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교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은 복지·경제·사회·경영·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이 과정은 사회복지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소비자학,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건축학, 디자인학 총 8개 학과(전공)에서 12명의 교수들이 참여해 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 분야별 네트워크, 현장 밀착형 교육, 기업가센터에서의 창업지원, 취업 및 인턴십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을 총괄하는 조상미 사회복지학 교수 겸 국제교류처 부처장(유학)은 "이화여대는 기업 사회공헌의 역할모델로 자리매김한 SK,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수행해온 고용노동부와의 학·민·관 삼자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협

동과정의 성공적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기숙사 봉헌식 및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기공식

모교는 8월 30일(수) 신축 기숙사 봉헌식과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기공식을 개최했다.

모교 신축 기숙사는 지난해 8월 개관했다. 팔복동산 인근에 '한우리집' 기숙사와 나란히 조성된 신축 기숙사는 E-House(지하 2층, 지상 5층)와 오뚜기 국제관(지하 4층, 지상 5층) 및 ROTC관(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됐다. 신축 기숙사가 추가로 건설됨에 따라 E-House 2,150여 명과 오뚜기 국제관 430여 명을 비롯해 총 4,300여 명의 학생이 캠퍼스에 머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연면적 6만 1,078m²의 신축 기숙사는 전체 에너지의 15%를 태양광, 지열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건물이며,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E-House SSG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정준순 총동창회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 내빈과 기숙사 신축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도 참여했다. 김혜숙 총장은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신축 기숙사의 건립을 후원해 준 1,900명 이화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신축 기숙사를 학문과 일상의 역동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세계를 이끌 인재가 배출될 장소가 아버지(고 함태호 회장)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영광"이라며 "이곳에서 더 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기공식이 아산공학관 인근 신축 부지에서 진행됐다. 이화·오뚜기 어린이집은 주식회사 오뚜기가 2013년 모교에 발전기금 30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조성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95m² 규모로 내년 5월경 완공 예정이다. 김혜숙 총장은 "이화·오뚜기 어린이집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화 구성원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탁아'와 관련해서도 좋은 국가모델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는 이번 신축 기숙사 건립과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자 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초전섬유·퀼트박물관장 김순희 동창

적의 복원을 통해 덕혜옹주 복식 환수라는 결과 얻어내

남산타워가 올려다 보이는 남산동 산기슭의 초전섬유·퀼트박물관을 찾아갔다. 이곳 박물관장 김순희(교육 55) 동창은 1998년 사택을 개조해 이 박물관을 개관하고 자신의 호 초전(草田)을 붙여 박물관 이름을 지었다. 이곳에는 조선왕조 궁중의상과 세계의 민속복식, 전통자수 및 조각보, 그리고 김 동창이 수집한 세계 각국의 민속복식 인형 등 1,700여 점의 소장품이 계절과 주제에 따라 전시되고 있다. 현재는 지난 7월 20일(목)부터 '조선왕조 궁중의상과 덕혜옹주의 복식복원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사실 김순희 동창은 대한민국 편물명장 1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편물과 전통 조각보, 궁중의상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인물로도 유명하다. 특히 2015년 6월 24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덕혜옹주가 어린 시절 입었던 의상 7점이 우리나라에 기증되었는데, 이는 일본 학교법인 문화학원의 오오누마 스나오(91세) 이사장과 50여 년간 오랜 교분을 쌓아온 김순희 동창의 꾸준한 설득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7일 김 동창은 대통령으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고 '올해의 문화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유학 가라고 추천서 써주었더니 난데없이 편물가게를 열었느냐!"

김 동창은 졸업 때 교육학과 졸업생인지 가정학과 졸업생인지 혼동할 정도로 두 학과의 전공 학점을 똑같이 이수했다. 그만큼 편물과 복식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본격적으로 편물과 인연을 맺은 것은 모교인 경기여고로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개교 기념 바자회 및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2년 더 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57년 유학자금을 마련할 겸 제일편물(박물관 부설 제일문화원의 전신)을 열었는데 그게 김 동창 평생의 업이 되고 말았다.

김 동창은 학창시절 김옥길 선생님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담으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당시 대학원 원장이던 오천석(전 문교부장관) 박사님과 학적과장이던 김옥길 선생님이 제가 컬

럼비아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전공도 아닌 편물가게를 냈으니 굉장히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김옥길 선생님은 충무로에 오실 때마다 가게에 들르셔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유학 갈 생각은 안 하고 장사를 하느냐,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열심히 해봐라, 이 분야에서 제일이 돼봐라' 하셨지요. 주변에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 하나 없던 상황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지요."

반면 김 동창의 본가에서는 여자가 어찌 장사를 하느냐며 반대가 극심했다. 사범대를 나왔으면 교편을 잡든지 얌전히 신부수업 하다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야 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제일편물이라는 가게를 내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니 웬만한 패기가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종가는 안동 군자마을에 씨족을 이루고 사는 광산 김씨로 아주 완고한 집안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김 동창 대신 안동에 계신 어머니가 매일 문중 어른들께 불려다니며 막내딸을 변호해야 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봐서라도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했다. 3년만 하면 그럭저럭 유학 갈 여비와 1년치 생활비는 벌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친구가 빌려준 200만 원으로 어렵사리 충무로에 가게 자리를 얻어 제일편물을 연 김 동창은 뜻하지 않은 계기로 거듭 번성하여 1962년에는 제일편물학원을 설립하게 된다.

"3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편물의상 개인작품 발표회'를 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일에 뿌리를 박게 된 사건이 터졌지요."

그 전시회를 찾았던 김 동창의 모교인 경기여고 박은혜 교장으로부터 경기여고 체육복을 주문받게 되었던 것. 감색 바탕에 빨간색, 하늘색, 흰색 브이넥으로 디자인된 스포츠웨어 편물 작품을 전시했는데 그 옷이 박 교장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경기여고의 체육복이 탄생되었다. 그 다음해 3월부터 체육복 주문이 밀려들었고, 학부모들이 가게를 드나들며 이것저것 맞춰 입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밤을 새며 일했으니까. 가게가 잘되자 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겠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집안 어른들과 합의를 본 것이 학원을 내는 것이었다. 가르치는 일이면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이다. 3년만 하겠다던 계획은 전환점을 맞았고, 그때부터 김 동창은 제대로 외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코코 샤넬의 눈을 사로잡은 남색 치마에 옥색 삼회장저고리

1963년에는 김 동창의 제일편물학원과 오오누



일본 문화학원의 오오누마 스나오 이사장과 함께

마 스나오 이사장이 운영하는 문화학원 간에 연쇄교(連鎖校, 자매결연)를 맺었다. 그것이 외국과 편물교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964년에는 일본 편물문화협회의 학원장들과 함께 유럽 패션스쿨을 순회하는 여행에 참가하게 되었다.

유럽에 갈 때 김 동창은 남색 치마에 옥색 삼회장저고리를 가져갔다. 100여 명의 시찰단 인원 중 한국 사람은 김 동창뿐이었다.

"당시 내로라 하는 디자이너들이 이 문화학원의 고문들이어서 시찰단이 방문하는 곳마다 패션쇼를 열어 주었어요. 다들 기모노를 입고 패션쇼를 보러 가기에 저는 가져간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하얀 동정의 한복이 눈에 띄었는지 패션쇼가 끝나고 고문인 코코 샤넬이 김 동창만 따로 부르는 바람에 일본인들의 질시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코코 샤넬이 제가 입은 하얀 브이넥이 어떤 옷인지 좀 보고 싶다며 저를 불렀어요. 그 많은 기모노 중에 제가 입은 한복이 돋보였던 거죠. 일본인의 질투와 시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 한복이 서양인들의 눈에도 기가 막히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이런 한복의 매력을 알기에 김 동창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복을 꼭 두 벌씩 챙겨간다. 거기에 당의까지 준비해 가면 따로 파티복을 준비해갈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한복만한 것도 없다는 김 동창의 한복 예찬론을 듣노라면 평생 한복과 함께한 그의 인생사를 실감하게 된다.

김 동창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1966년 당시 현대경제일보 사장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1967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참

1955년 모교 사범대 교육학과 졸업
1957년 제일편물 창업
1962년 제일편물학원 설립
1966~81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설립, 편물직종장, 심사위원장
1972~98년 이화여대·숙명여대·덕성여대 초빙교수
1998년 초전섬유·퀼트박물관 설립
2000년 대한민국 편물명장 1호
2001년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창립협회장
수 상 : 2004년 제36회 '신사임당 상' 수상
2007년 제10회 '자랑스런 박물관인 상' 수상
2013년 덕혜옹주 특별전 감사장,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015년 올해의 문화유공자 선정 및 은관문화훈장 포상

가해 금메달을 따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한 일이다. 1964년 유럽에 갔을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을 처음 보게 된 것이 이 일의 단초였다. 그것을 계기로 김 동창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 이후 편물직종장과 심사위원, 1981년 제1회 장애인기능올림픽 기술위원을 맡기까지 어언 15년간 우리나라의 기능인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79년 아일랜드 코크에서 개최된 제25회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이 17개의 메달로 3연승을 거뒀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등수가 발표되자 경기장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과 기술위원들이 기쁨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옹헤야〉를 합창했지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저 두 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 동창의 관심 영역이 편물에서 전통 조각보로 또 궁중의상으로 확대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 및 고종의

고명딸 덕혜옹주와의 인연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일본에서 편물문화협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1년에 두 번씩 문화학원을 방문했던 김 동창은 그곳 복식박물관에 소장된 덕혜옹주의 황실 의복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한 점도 없는 이 복식들이 이곳 소유가 된 것은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자 덕혜옹주의 오빠인 영친왕 부부가 덕혜옹주와 정략결혼했던 일본의 소 다케유키 백작에게서 돌려받은 혼례품과 복식 등을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이방자 여사와 뜨개질로 맺어진 인연으로 1985년 『조선왕조 궁중의상』(발행인:이방자)을 펴내기도 했던 김 동창은 1983년 이방자 여자의 부름을 받고 낙선재로 갔던 날, 덕혜옹주와 처음 대면하게 된다.

"이방자 여사가 뒤뜰에 철쭉꽃과 수석이 어울려 참 보기 좋다고 구경 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덕혜옹주가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덕혜옹주를 뵈었지요. 낙선재와 수강재 사이에 있는 뜰로 나오려면 좀 걸어야 하는데 세 사람의 수발을 받으며 거기까지 나오는 게 그분 최고의 외출이었어요. 그때 이방자 여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분보다 하루라도 늦게 가야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되겠느냐, 그래야 저분을 돌보고 뒷바라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시더군요. 한 분은 왕녀, 한 분은 왕비였던 두 분의 말로를 보면서 이 자리에 같이 서 있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저 두 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지요."

그 후로 김 동창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게 바로 덕혜옹주의 복식환수 문제였다.

2010년 11월 1일 도쿄에서 문화학원 개원 88주년



이방자 여사의 적의

문화제 기념행사와 이방자 여사 110주년 생신축하 기념으로 '조선왕조 궁중의상' 특별전이 열렸다. 2년 뒤인 2012년에는 그에 대한 답례로 우리나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덕혜옹주 탄생 100주년, 환국 5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덕혜옹주의 옷과 장신구 등이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전시회였다.

"전시회 2개월을 하고 끝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내 눈으로 본 덕혜옹주 옷 60여 점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고 다 일본에 있었으니까요. 일본에서 전시회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방자 여사의 의복뿐 아니라 여러 가지 궁중의상들을 보냈는데, 일본의 복식문화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적의(翟衣, 꿩무늬가 들어간 적통 왕실 비의 법복)를 자세히 보더라고요. 천에 무늬를 수놓은 게 아니라 아예 천을 짤 때부터 무늬를 넣어 직조한 것이라는 말에 큰 관심을 보였던 거지요."

그때 김 동창의 머릿속에 '저 옷을 복원해서 한 벌 기증하면 덕혜옹주의 옷을 가져다 우리나라에 전시도 하고 여러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적의는 우리나라에 순정효 황후(순종의 비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의 것과 이방자 여사의 것 딱 두 벌만 있는 아주 귀한 옷이다. 김 동창은 이 적의를 복원하기로 하고 이방자 여사의 기념관(현 명휘기념관)에 전시될 적의를 짤 때 한 벌 더 제작을 의뢰했다.

"일본 문화학원에 적의를 보냈더니 오오누마 이사장이 그 귀한 옷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던지…. 덕혜옹주의 옷 7점이 공연히 나왔겠어요?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한국에 그 옷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한 셈이었지요. 그때 우리한테 적의를 받고는 덕혜옹주 복식 환수에 도움을 준 거지요."

우리의 전통 보자기와 궁중의상을 해외에 전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퀼트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에도 앞장서 온 김 동창은 우리의 한복과 전통 바느질이 잊혀져가는 요즘 세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우리 것에 관심을 두게 해야 전통문화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반갑게도 체험학습을 하러 온 아이들이 바느질에 관심을 보이고 남자아이들도 곧잘 바느질을 따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6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김 동창이 걸어온 55년의 인생길은 역동 그 자체였다. 8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전시회를 열고 박물관 체험학습을 지도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김 동창. 내년이면 제일문화원 설립 60주년, 박물관 개관 21주년을 맞는다. 현재 그 시기에 맞춰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또 이번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문화학원 개교 기념 전시회 참가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예전의 학교 운동장이 그려진 《이화동창》 표지를 쓰다듬던 김 동창은 "그 시절 이화 캠퍼스가 그립네요. 이화가 내게 선물해준 그 많은 사랑과 인연에 감사해요. 이화에서 만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또 훌륭한 교육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었어요"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박물관 내부 전경

"제자들이 참 고맙습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그뿐이에요"



정병희 명예교수

1929년 충남 공주 출생. 1952년 성균관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54년 서울대 대학원 불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57년 이화여대 문리대학에 신설된 불문학과에 1959년 부임한 뒤, 재임 중 프랑스로 유학, 프랑스 희곡 전공으로 파리3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년 인문대학장을, 1965년 설립된 한국불어불문학회의 12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5년 퇴임하였다. 저서로 『라신 희곡 연구』, 『현대 프랑스 연극』, 『프랑스 중세 종교극 연구』, 『라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공저), 『한국가면극연구』(프랑스어 출판), 역서로 『에밀』, 『바보예찬 / 잠언과 성찰 / 인간성격론』, 『뷔뷔드 몽빠르나스』, 『마농레스꼬』, 『라신 희곡선』(공역), 『까뮈 희곡선』(공역), 『몰리에르 희곡선』(공역) 등이 있다.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홍경표(불문 65) 12대 동창회장, 한남대 불문과 교수 역임
배혜화(불문 77) 22대 현 동창회장, 전주대 영화방송학과 교수
유혜영(불문 78) 차기 동창회장
서동민(불문 79) 차차기 동창회장

불어불문학과는 '아미(Amies, 친구)회'라는 모임을 통해 동창 간은 물론 스승과도 돈독한 우의를 가꾸어 왔다. 그 중에서도 정병희 교수는 제자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각별한 사이다. 이번 대담이 한 끼 식사를 곁들인 일상이 되었던 것은 이런 화기애애함과 자유로움 덕이다. 자리한 제자들의



뜨거운 어느 여름날 와인빛으로 웃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홍경표·유혜영·서동민·배혜화 동창 그리고 정병희 명예교수

면면도 독특했다. 대놓고 전직, 현직, 차기, 차차기 동창회장이라. 맏언니 격인 홍경표 동창이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껏 들썩였다.

2017년 4월 학과 설립 60주년 총회에 정병희 교수가 건강 문제로 참석치 못했던 것이 못내 섭섭하고 안타깝던 차에, 제자들은 몇 개월 만에 쾌차하시어 핑크빛 셔츠로 살짝 멋을 낸 스승의 가벼운 들뜸을 놀리는 것으로 반가움을, 자화자찬이란 콘셉트로 고마움을 건넸다. 빠르게 회복하는 스승의 건강과 웃음은 또 다른 복이요, 기쁨이 아니던가.

배혜화 __ 적응이 안 되시죠? 우리가 선생님과 친밀해서. 다른 과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홍경표 __ 우리가 비정상이지(일동 웃음). 솔직히 우리들 오래간만도 아니에요.

유혜영 __ 작년에 미수(88세)셨어요. 파리에 여행 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죠.

서동민 __ 선생님, 괜찮으시지요?

유혜영 __ 우리 선생님 몇 세로 보이나요? 지금도 멋지시죠? 불란서 유학파시잖아요. 예전엔 정말 대단하셨어요. 불란서 가면 공부 말고 요리나 다른 것을 배워 오라고. 지금이야 셰프가 인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학문만 생각하던 때에.

홍경표 __ 그럼 뭘 해. 혜영 씨, 자기 왜 공부 더 안 한 거야? 저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남자한테 빠져서 공부고 뭐고 다 팽개치고……." 혜영 씨가 어떤 남자한테 매달려서 팔짱을 끼고 덕수궁 돌담길 데이트하는 걸 우연히 보신 거지.

서동민 __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충고를 하실 때에도 직설적으로 하시거든요. 저희는 워낙

익숙해서.

유혜영 __ 저를 공부시킨다고 처음으로 연구조교 제도까지 도입해 주셨는데, 결혼으로 계속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미안했는지, 받은 돈을 다 돌려주었다니까요.

홍경표 __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셨어요. 일을 크게 벌이시지는 않는데, 소소하게 추진력이 있으셔요.

배혜화 __ 제자들을 참 잘 챙겨 주셨지요. 학교에, 직장에, 중매까지…….

홍경표 __ 그런데, 선생님이 《라 프랑스》를 창간하고 얼마 안 돼서 불란서로 떠나셨잖아요. 《라 프랑스》는 우리한테 맡기시고……. 저희가 고생을 좀 했지요(눈 흘김).

정병희 __ 소르본느에서 강의를 듣는데, '깐, 깐, 깐' 하는 거야. 도통 못 알아듣겠더라고. 칸트를 그렇게 발음하니 원. 우리 전 세대는 일본을 통해 불어를 배운 세대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처음 불란서로 유학 간 세대인데, 그것도 겨우 서넛. 몇 안 되는 유학생끼리 마냥 한탄만 할 수 있나. 일부러 외진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불란서 학생이랑 한 방을 썼지. 그 학생은 18, 19세야. 그 학생한테 욕만 실컷 배웠어. 그러고 나니까 귀가 트이더라고.

유혜영 __ 원어 연극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살아 있는 말을 쓰라고.

홍경표 __ 당시 제일 큰 무대였던 국립극장에 올렸잖아요. 학생들이 하는 연극을 말이에요. 다들 참 용감했어. 선생님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비용도 혼자 마련해 오셨고요. 그 유명한 김정옥 선생님이 연출해 주시고. 지금도 다 기억해요. 몰리에르 작품을 올렸을 때 고전 의상도 제대로 갖추고, 선생님 댁에 있던 골동품도 소품으로 썼어요.

서동민 __ 무대가 끝나면 박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홍경표 __ 연극 연습해야 한다고, 저희가 댁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납치해온 적이 있어요. 돈암동 한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실 때였는데, 가족 휴가를 나설 참에, 교수님의 어린 자녀들한테 미안했네요. 그런데도 사모님께서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정병희 __ 집안이 나름 보수적인 가풍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갇혀 있기만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배혜화 __ 저희한테도 집을 뛰쳐나오라고 가르치셨어요. 전전긍긍 억누르지만 말고, 본능을 따르라고. 생활은 전통을 따랐어도, 생각만큼은 일찌감치 활짝 열고 산 분이에요.

홍경표 __ 원래 자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열어 놓는 법이지.

배혜화 __ 불문과 분위기가 그래요.

유혜영 __ 학생들도 불만이 없었어요. 서울대, 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 경계 없이 다 모셔와 주셨잖아요. 특히 석사, 박사 과정은 강사진이 좋았어요.

서동민 __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중에서도 정말 참스승이에요.

정병희 __ 초창기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말 참 많이 왔어. 한참 잘나갈 때는 초급 불어만 20개 반이 넘었을 정도였지. 그치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17세기 불란서 고전문학을 전공했어도, 지금 그걸 공부해라 소리는 못 해요. 좋은 현대물도 많거든.

홍경표 __ 선생님이 전공한 라신은 인간의 정념,



정병희 명예교수 댁과 가까운 중식당에 모였다. 여전히 멋스런 선생님 덕분에 사진이 돋보인다며 한바탕 웃음.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홍경표·서동민·유혜영·배혜화 동창 그리고 정병희 명예교수

자유, 저항, 나약함을 쓴 작가예요. 프랑스 고전주의 3대 작가 중에서 몰리에르를 많이 읽는데, 몰리에르가 과감한 저항이라면, 라신은 자분자분하달까.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라신 쪽이네요. 리버럴한데, 급진적이기보다는 서서히 구석구석 차근차근 개선해가는 타입.

정병희 __ 퇴임하고도 25년이 흘러 다 잊어먹었어. 나에 대해선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참 고맙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얌전합니다. 나는 미안합니다. 그뿐이에요. 한 일도 별로 없이. 그래도 후학들이 소설 쓰고 희곡 쓰고, 좋은 작품은 번역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고전 쪽에 관심 있다면, 그리스 로마 쪽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서동민 __ 선생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저희가 행운이에요. 살아 있는 불란서 말과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무엇보다 큰 키에 청바지를 정말 멋지게 입어내는 선생님을 아무나 만나나요? '자유로움'이라는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선생님은. 틀에 박힌 삶이 아닌.

홍경표 __ 선생님, 그리고 프랑스의 매력이지요.

배혜화 __ 저항 의식이고.

정병희 __ 인간이라는 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비극적인 것이기도 하거든. 규칙을 깨뜨려가며 사는 존재.

"'자유함'이라는 영향"을 주신 스승, "살아 있는 말을 쓰라" 격려하고 "제자들을 참 잘 챙겨"가며 활기를 주셨던 정병희 교수는 "나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의 말은 아끼고, 제자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고맙고 대견한 제자들! 무더위에도 행복이란 느낌은 그렇게 오고, 사는 게 또 그런 거라 함께 미소 지으니 한여름 뜨거움도 누그러진다.

진행 및 정리 · 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대한민국 제1호 대학출판기관,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

모교 후문에서 건널목을 건너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화당이라는 빵집을 지나게 된다. 학교 다닐 때 드나들던 빵집이 아직도 있으니 참 오래된 가게다. 많은 가게들이 새로 생기고 사라졌을 텐데 오래된 가게 하나가 그 거리를 낯설지 않게 만든다.

그 빵집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왼쪽으로 쌍둥이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갈색 벽돌에 박공지붕을 인 아담한 빌딩이다. 그중 한 건물의 4층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이 있다. 이전의 이화여대출판부가 2016년부터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화의 한 식구인 동시에 그 스스로 독립적인 출판사라는 것을 말해주듯 이화의 울 밖에 자리 잡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그러나 이 작은 기관의 존재감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이 골목이 이화의 일부라 생각되는 마술이 일어난다.

1949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대학출판기관

1946년, 이화는 국내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았다. 문과와 가사과, 음악과만 있던 전문학교 체제를 벗어나 체육·미술·교육·의학·약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로 전공 영역을 넓히며 여성 교육과 사회 진출의 지평을 확대했다. 당시 이화의 비전은 여성 교육의 장을 넘어 학문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다. 1949년 6월에는 대학원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화의 첫 부속기관으로 교수들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뒷받침할 출판부가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출판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자신의 저서 『발라시네』를 들고 있는 르 클레지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은 첫 번째 작업으로 일제 강점기 때 불온간행물로 정간되었던 학생회 교지 《이화》를 복간했다. 1950년 4월의 일이다. 곧이어 발발한 6·25 동란으로 출판 사업은 잠시 중단되었고, 휴전 이듬해인 1954년에 김동명 시인의 시집 『진주만』이 첫 번째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해방과 전쟁 후 1세대 유학자들이 귀국하면서

한국 대학은 학문의 중흥기를 맞았다. 서구의 새로운 학문과 방법론이 소개되었고, 전공 영역이 세분화되고 심화되면서 교수의 강의노트에 의존하던 기존의 대학수업은 이제 교재와 부교재, 참고도서 등 여러 필독서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양과 전공과목의 교재 개발과 출판은 대학출판기관의 중요 사명이 되었으며, 그 필요성을 남보다 빨리 알고 시작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은 대학의 출판문화를 선도하며 학술문화 진흥에 이바지했다.



《이화》지 9호

우수도서의 명당, 늘 새롭게 진화하는 유기생명체

1979년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은 '지성인의 격조 있는 준학술적 교양도서' 100권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이화문고' 시리즈를 출범시킨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곰브리치의 『예술과 환영』,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과 예속』 등 서양의 고전명저들이 잇따라 출간되었고, 모교 철학과 소흥렬 교수의 역작 『논리와 사고』는 증보 개정판을 거듭하며 대학 논리학 강좌의 필독서가 되었으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가 여러 학문 분야의 '페미니스트' 교수들과 함께 편집한 『여성학』은 한국 최초의 여성학 교과서가 되었다. '이화문고'는 1990년 5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간행하는 《출판문화》로부터 '기획출판의 성공사례'로 선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찰한 '내일을 여는 책' 시리즈를 기획했고, 이를 통해 『황제의 새 마음: 컴퓨터, 마음, 물리법칙에 관하여』, 생태 여성주의를 다룬 『다시 꾸며보는 세상』 등이 출간되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이화의 학문적 독보성이 검증된 어린이·여성학·심리학·특수교육·종교 등 5개 분야에서 자체 기획도서를 시리즈로 선보였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화의 졸업생이 자기 며느리에게 보낸 요리 편지를 책으로 묶은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은 국내 출판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등극, 대중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학술과 준학술, 교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더욱 다양한 시도를 했고, 대학출판의 금기로까지 여겨졌던 대중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 국내 대학출판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패밀리브랜드를 신설했는데, '글빛'에서는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르 클레지오의 영화 에세이 『발라시네』를 비롯해 일반 대중을 위한 고급 문예물을 출간하고 있고, 'E.press'는 어학교재 전문 브랜드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화문고'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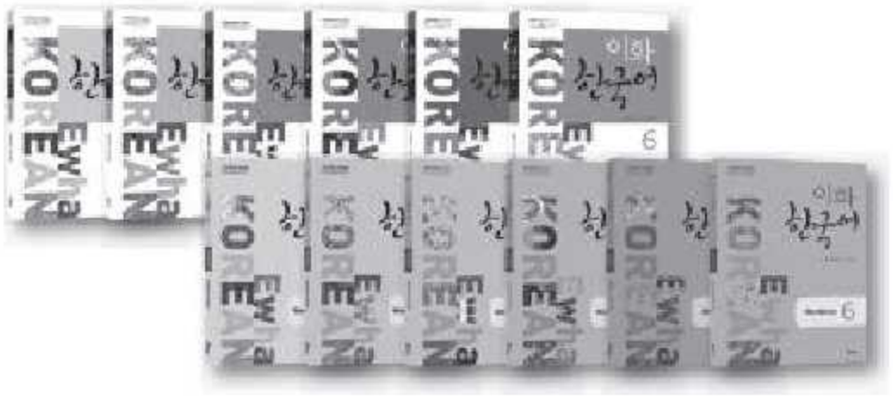
서 이화의 울타리를 넘어 타 대학과 일반인에까지 판매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국문판과 영문판 각 30종을 동시에 출간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는 이화 출판의 또 다른 모토인 '세계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이화 소속 전임교수의 저술활동 지원과 우수저서 출판을 위해 2002년부터 저술지원사업도 시작했는데, 해마다 5편을 선정하여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책은 모두 좋은 책이어야 한다'는 열의로 기획과 편집, 마케팅까지 정성을 기울여 한 권 한 권 세상에 내보내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그 열정은 매년 우수도서에 다수 선정되는 결실로 돌아오고 있으며, 2017년에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의 책이 세종도서(옛 문체부 우수도서) 학술 부문에 5종이 선정되었고,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도 2종이 뽑혔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출판부로 시작, 학술 출판의 본령을 다하면서도 교양지식의 대중화, 세계화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늘 변화하고 새롭게 진화해온 이곳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의 시리즈

① '이화 한국어' 시리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와 해외동포를 위해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 1급에서 6급까지 총 30권의 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3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한국어 교재로도 채택되어 한국어 한류의 주역이 되고 있다. 13개국 40개 거래처로 팔려나간 이 시리즈는 모든 책이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중국어판은 간체본과 번체본이 모두 있다.

②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루는 근간을 요소별로 집중 조명하여 한국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판형으로 꾸며진 이 시리즈는 제1권 『한국사 입문』부터 제

30권 『한글, 한국의 문자』까지, 역사·문학·건축·의복·공예·가구·음식·미술·종교 등 모든 분야를 다루었고 아름다운 유물사진도 곁들였다. 30권 모두 국문판과 영문판이 있으며 『한국사 입문』 등 일부는 일본에서도 출간되었다.

③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시리즈는 아니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의 첫 책이기에 이곳에 소개한다. 저자는 모교 장선용(국문 63) 동창이다. 평범한 주부가 쓴 이 요리책은 화려한 사진은 없지만 삶이 녹아든 진솔함으로 대중을 사로잡았고, 이로써 대학출판부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출간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얼마 전에는 〈윤식당〉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소고기 뭇국을 요리할 때 이 책을 참고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튿날 서점 주문이 쇄도하기도 했다. 영문판으로도 번역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어판도 나왔다.



④ 이화 플래너와 달력



해마다 연말 즈음이면 이화 플래너와 달력이 출시된다. 전문 사진작가와 협업하여 1년에 걸친 기획과 사진작업 끝에 탄생하는 달력과, 1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꾸며진 플래너는 매년 졸업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아이템이며,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교보문고 등 일반서점에서도 시중 판매된다. 이 외에도 이화컬러링북, 이화엽서, 이화퍼즐, 이화노트 등 학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편집자 추천도서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해리엇 러너 지음, 김태련·이명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주간인 이혜지(불문 89) 동창에게 동창들을 위해 딱 한 권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추천했다. 여성의 인간관계,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 에너지로서의 '분노'를 재해석한 책으로 영어권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된 여성 심리학 분야 베스트셀러다.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의 양육(養育), 좋은 선생님이 되어 보답할래요”

그녀의 꿈은 수의사였다. 1992년 2월, 그녀는 서울 한 대학의 수의과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낮이었다. 거리를 걷다가 하늘을 보았는데 갑자기 태양 빛이 번쩍 하더니 오른쪽 시야가 새까매졌다. 병원에서는 망막에 출혈이 일어났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색깔은 조금 옅어졌다. 하지만 마치 커다란 터널을 뚫어놓은 듯 시야 중심부는 여전히 캄캄했고, 주변부만 그것도 마치 모자이크 처리를 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분간이 어려웠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다른 한쪽은 온전하니 그 눈으로 생활하면 될 겁니다.”



대학생이 된 그녀는 평범한 신입생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왼쪽 눈마저 똑같은 증상이 생긴 것이다. 오른쪽 눈이 그렇게 된 지 꼭 1년 만의 일이었다. 앞이 안 보이는 수의사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이끌고 병원들을 다녔지만, 고칠 수 있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니, 더 절망적인 말을 했다. 앞으로 3~4년 안에 완전한 실명이 올 거라는 이야기였다. 고칠 방법이 없겠냐며 매달리는 어머니에게 한 병원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스무 살 수의학도에게 들이닥친 ‘1급 시각장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16년 2월 모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김태연(영교 16) 동창이다. 스무 살에 망막병변에 의한 1급 시각장애인이 되어 20년간 꿈을 접고 살아온 김 동창은 마흔 살이 되던 2012년에 모교에 입학했다. 4년 뒤 ‘최고령 졸업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졸업했으며, 바로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경인중학교의 영어교사로 부임했다. 수의대 학생과 영어교사, 그

사이에는 어떤 세월이 자리하고 있을까?

"학교를 그만둔 뒤 주로 집에서 지냈죠. 어머니는 제가 적적할까 봐 대학 친구들을 집으로 놀러오도록 해서는 열심히 음식을 해주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책을 읽을 수도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라디오를 주로 들었죠. 라디오는 당시 제가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김 동창은 EBS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매일 들었고, 녹음해서도 들었다. 원래도 영어 과목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는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한 시기다. 듣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곧 완전 실명이 올 거라는 의사의 말은 다행히 빗나갔다. 집으로 놀러오던 대학 동기들은 3년이 지나니 발길이 끊어졌다. 남자 친구들은 입대를 하고 여자 친구들은 국가고시 준비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뭔가 소일거리를 찾던 그녀는 이웃의 소개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습지 교사를 하게 되었다. 방문지도는 한 달에 3~4회이고 나머지는 전화로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게 용기를 주었다.

몇 년 만에 시도한 사회와의 첫 접촉이었고, 김 동창은 신나고 성의 있게 아이들을 지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는지 아이들이 점점 늘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50명 학생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저장되었다. 방문지도를 하고 돌아갈 때 현관에서 신발을 찾느라 더듬거리면, 어머니들이 달려와 신발을 신겨 주곤 했다.

4년을 쉼 없이 일했더니 체력과 시력이 떨어졌다. 충전을 겸해 1년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귀국 후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단전호흡과 자연치유 등에 집중했다. 하지만 눈 건강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렸고, 33살에는 백내장까지 겹쳐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당시 다니던 병원에서는 "일반인 같으면 백내장 수술을 하겠지만 이 환자는 망막이 아예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고 하여 엄두를 못 냈다.

햇빛도 볼 수가 없었다. 집에서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있었지만 커튼 위쪽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에도 망막이 상했다. 결국 부모님은 집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그녀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모든 유리를 선팅 필름과 커튼으로 이중차단하고, 실내 불빛을 받으면 반짝거릴 물건도 쓰지 않았다. 집에서 세끼 밥을 해서 가져왔는데, 숟가락조차도 나무숟가락으로 바꾸어야 했다.

"30대에 커튼을 치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암흑의 시기가 왔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현실을 반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정말 100%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고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열린 새로운 문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100% 수용한다는 건 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본 적은 있지만 왠지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래서 관련 시설이나 커뮤니티와 별다른 연관을 맺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상황이 절박해지니 손이 내밀어졌다. 직업 문의를 하려고 복지관에 전화했다가 시각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동창은 컴퓨터를 켜는 법도 몰랐다. 때는 2006년이었다.

또한 복지관 직원은 김 동창이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는 역시 영어에 관심이 많은 시각장애인 두 명을 연결시켜 주어 취미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외출을 못하는 그녀를 위해 두 사람이 집으로 방문했는데,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대학이요? 시각장애인을 선뜻 받아 줘요?" "그럼요. 1996년부터 시각장애인도 대학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받아 주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사정을 해서 간혹 받아 준다 해도 모든 불편과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다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김 동창은 2010년에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수술을 받으면 망막이 떨어져나갈 위험이 10분의 1이라 했는데, 그간 안과 의학이 발달했는지 10만 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했다.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확률이었다. 망막 상태는 여전히 복원 불가지만 백내장 수술로 자유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그녀의 눈 상태는 시야 중심부는 안 보이고 주변부만 군데군데 보이는 영역과 안 보이는 영역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그녀에게는 이것마저도 커다란 축복이고 기회였다.

"내가 꿈꾸는 교실은 시끄럽고 생기 있는 교실"

2010년 9월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한 김태연 동창은 마흔 살이 되던 2012년에 모교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이화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비록 라디오만 접했지만 영어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화 출신이었다. 매일 EBS 라디오의 영어프로그램을 듣던 시절, 이보영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특히 기다려졌다. 진행자의 쉽고 명쾌한 설명을 들으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대에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이화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기반시설 등에서 다른 학교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화 안에 특수교육학과도 있는 만큼 장애

학생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제 선택이 옳았어요. 우리 학교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라는 전담부서가 있어요. 이곳에서 장애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도와주고 수업지원 도우미를 붙여 주며, 시험 편의와 이동 등을 지원하지요. 대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장애학생 간담회도 진행하고요. 저의 경우 교재를 사면 매 페이지마다 사진으로 찍어 PDF 파일로 변환한 뒤 이것을 메모장 텍스트 파일로 바꾸어서는 다시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중 20% 정도는 변환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곳 분들은 학생의 도움 요청을 들어주려 최선을 다하셨어요."



라디오로만 접해본 영어 선생님을 학교 수업에서 직접 만나는 행운도 누렸다.

"2학년 때 이보영 교수님의 영문법 수업을 들었어요. 너무 반갑고 신기하다고 교수님께 말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성적도 그 과목에서 1등 했어요. 졸업 후 교사가 된 뒤 교수님이 축하한다고 밥도 사주셨어요."

김 동창이 근무하는 경인중학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그녀를 위해 전용 영어교실을 배정해 주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그 교실로 온다. 교재는 머릿속에 모두 외워두고, 수업을 위해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는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칠판에 띄우며 수업을 진행한다.

어학은 시각장애인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에 영어교사의 길을 택했지만, 1년 반 가량 교단에 서 보니 역시 이 길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고, 내가 가진 지식을 누군가와 나누는 게 신나서 교단에만 서면 저절로 에너지가 솟는다. 김 동창의 책상서랍에는 늘 건빵과 사탕이 있다. 교실로 놀러오는 학생들에게 줄 소박한 간식거리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여럿이 몰려와 농담을 주고받거나 그러다 신이 나면 춤을 추기도 한다. 김 동창은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교실이 좋다. 이런 생기 있는 소통이 즐거운 수업의 밑거름이라 믿는다.

"이화는 저에게 부모와 같은 학교예요. 미숙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서 잘 키우듯, 이화도 제가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무기와 자신감을 주었지요. 그 양육(養育)이 헛되지 않게,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글 · 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들이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베트남 선교대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나라, 전체 인구의 70%가 20대 이하의 젊은이로 구성된 나라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베트남을 경험하였습니다. 호치민에서 시작된 선교대회는 다낭과 하노이까지 연결되었고, 베트남 여러 교단 신학교와 교회에서 선교강의를 비롯하여 개교회에까지 선교적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한 만남과 도전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하는 베트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00여 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선교사 파송 숫자가 몇 명인지 통계가 나오지 않는 베트남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진행하기로 현지 교회와 현지 선교사 그리고 저희 WEC선교단체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희어진 밭을 보여주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역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며 훈련시키는 사역에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베트남에서도 선교사가 나오는 날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카렌 신학교 강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영어 과정에 있는 신학교 2학년 학생 네 명입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선교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 학생들에게 성경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며,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강의할 때 학생들의 반응은 새로운 나라에 여행을 떠난

자들처럼 흥분과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 미래에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천군만마의 아군을 만난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정착

1년간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적응하는 연단의 시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역비자로 변경

태국에서 선교훈련과 사역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1달을 받았고, 그 후 점차적으로 3달, 1년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매번 이민국에 가서 비장 연장과 사역 보고를 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이어스 RDS

22명의 제이어스 레디칼 디사이플십 스쿨(RDS)이 치앙마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주간 선발대와 본대의 정착을 돕고 필요한 부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이어스 대표간사는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만난 학생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멋진 팀을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훈련받으러 온 젊은 청춘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 먼 곳 치앙마이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속 소원대로 진정한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염승혜(서양 96) 동창

♥ 기도해 주세요 ♥

1. 신반포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7월 31일(월)부터 일주일간 단기선교로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2. 제이어스 RDS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3. 9월 4일(월)부터 10월 27일(금)까지 제8회 선교사 훈련과정(METC)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집트와 일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한국과 중국에서 학생들이 입학원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입학 관련 행정사역을 이메일로 진행할 때 지혜 주시고 훈련생들과 이메일로 잘 소통하도록
4. 베트남과 미얀마는 잠재적 선교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므로 베트남 선교대회 이후 선교 강의와 동원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지역 방문과 선교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음악대학

회장 __ 임진(작곡 72)

2017년도 제2차 임원회의 개최

2017년도 음악대학 동창회 제2차 임원회의가 6월 29일(목) 12시 ECC 케세이호에서 열렸다. 이번 임원회의는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청자(기악 64) 동창이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인원은 21명이며 선교사 후원 등 여러 안건을 수렴하였다.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뮤직 페스티벌의 연합 공연 여부를 9월 바자회까지 각 과에서 수렴하여 좀 더 풍성한 음악회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9월 21일(목) 바자회에 판매할 물품이 겹치지 않게 각 과에서 결정해야 한다(바자회 부스는 9월 14일(목) 추첨 후 공지 예정).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 음대 동창회

3. 선교사 후원은 모교에서 정한 선교사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후원과 지정헌금을 통한 계속적인 후원을 도출한다.

4. 각 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일임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길 임진 회장이 부탁하였다. 원활한 과 동창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각 과 회장은 가능한 한 3월 정기총회 이후에 변경하고, 이하 임원은 각 과 회장의 권한으로 상시 임명 및 변경이 가능하다.

5. 8월 말 회장단 모임 예정(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이며, 음대 동창회 회칙을 숙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음대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형예술대학

회장 __ 봉지희(섬예 85)

합창제 뒤풀이로 소통의 자리 마련

6월 16일(금) 조형예술대 합창단의 신·구 합창단원 모임이 있었다. 5월 31일(수) 모교 대강당에서 131주년 동창의 날 합창제를 함께한 조형예술대 합창단원들은 이후 서양화과 동창회장인 조기련(서양 83) 동창이 설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문화정원'의 옥상 한옥 가든에서 합창제 뒤풀



합창제 뒤풀이로 바비큐와 담소를 즐긴 조형대 합창단원들

이로 바비큐와 담소를 즐겼다. 또한 신입 합창단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다가오는 132주년 합창제 준비를 위한 방향도 논의하였다. 이 모임은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섬예, 생미, 장미, 도예 등 합창단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신·구 합창단원들의 즐거운 소통의 자리였다.

약학대학

회장 _ 박하영(약학 77)

약대 동창회 60주년 기념특집호 발행

6월 정기임원회가 6월 14일(수) 10시 30분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와 녹색의 싱그러움 속에서 우리의 전통 한옥과 가구의 아름다움에 스며 있는 선조들의 생활 지혜와 수집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말 없는 인내를 배우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오찬 후 박하영 회장의 인사와 경과보고, 서기, 회계보고가 있었고, 주홍장학회와 약학연구소 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4, 5월에 가진 행사에 대해 문화부, 사업부, 선교부, 지역부의 보고가 있은 후 약대 동창회 60주년을 맞는 올해 동창회 소식지 발행을 위한 약사부의 계획발표가 있었다. 박하영 회장은 약대건축기금 현황보고와 함께 꾸준히 모금에 동참하는 동창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자료부에서 인터넷 환경이 계속 바뀌어 신규 홈페이지를 전면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동의와 제청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8월에는 약대 동창회 60주년 동창회 소식지(제35호)를 발행하였다. 소식지 발행을 위해 5월 약사부, 학술부의 주관으로 첫 미팅을 갖고 제작방향을 정하고, 콘텐츠를 의논하였다. 역대 회장인 고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약대 동창회의 지나온 날들과 앞날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고, 옛 은사를 모시고 이제는 인생의 선배인 분들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6월과 7월에 걸친 여러 번의 수정작업 끝에 8월에 이화 소식, 약대 소식, 각 동창들의 근황 등을 풍성하게 담은 소식지를 3,200부 발행하여 발송을 모두 마쳤다.

8월 21일(월) 한초덕(약학 50) 명예교수가 향년 89세로 영면하였다. 한 교수는 약대 동창회 자문위원으로, 선교부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학장으로 재직 시 문을 열어 주었던 귀한 분이다.



한국가구박물관에서 6월 정기임원회를 개최한 약대 동창회

영어영문학과

회장 _ 김혜정(72)

역사탐방과 영학회의 밤

4월 25일(화) 화요일 따뜻한 봄날, 영학회를 위해 늘 애쓰는 간사들과 임원들이 역사 배우기에 나섰다.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제1탄. 35명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운현궁에서 북촌까지 탐방한 후, 김혜정 회장의 연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맛있는 점심과 담소로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5월 29일(월) 양재동 엘타워에서 영학회의 밤을 진행하였다. 유중근(67)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여 손병옥(74) 동창의 축사, 김혜정 회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특히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선정된 오은주(74) 선교사에 대한 꽃다발 증정으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였다. 이승아(92) 영문과 학과장의 영문학과 소식 전달 후, 홈커밍기(67, 68, 87, 88기)의 영학회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새내기 동창에 대한 환영 후, 모교의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김혜숙(76) 동창이 깜짝 등장하는 놀라운 즐거움이 있었다.

맛있는 만찬 후 2부에서는 김숙자(체육 64) 모교 명예교수의 리드로 즐겁게 몸을 흔들며 긴장을 풀고, 홈커밍기의 공연(합창과 사물놀이)을 흥겹게 관람하였다. 뜨거워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이대 남성 교수 중창단 '백설공주와 오빠들'의 아름다운 중창이 있었고, 행운권 추첨으로 모든 테이블에 즐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LG 스타일러를 비롯한 상품권 및 상품들로 푸짐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영학회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한 영문학과 동창들

불어불문학과

회장 _ 배혜화(77)

정기모임 개최하고 단체여행 논의

불어불문학과 동창모임 '아미회'는 8월 18일(금) 많은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가졌다. 10월 18일(수)로 예정된 안동 여행에 대하여



정기모임에 참석한 불문과 동창들

논의하며 졸업 1기부터 38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창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이봉무(72)

기간사 모임을 갖고 지난 행사에 대해 평가

6월 23일(금) 12시 강남호텔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기간사 모임을 열고, 지난 이화 창립 기념일 행사에 관해 평가하였다.

131주년 동창의 날을 맞아 1967년 1회 졸업생과 1987년 21회 졸업생들이 각각 50년, 3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독문과 동창회 회장단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전달했지만, 달라진 이화 캠퍼스를 안내하지 못해 아쉬웠다.

행사장에서 선후배를 반갑게 맞아준 2회 졸업생 남재은(68) 고문은 "2018년에는 더 알찬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원하였다.



50년 만에 이화 캠퍼스를 찾은 독문과 1회 졸업 동창들.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였다

사학과

회장 __ 한상혜(73)

4년 만에 개최된 사학과 정기총회

6월 22일(목)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4년 만에 열린 이날 총회는 1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총회는 동창회장 인사,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동창 축하, 각 기 동창 소개, 박사 학위 취득 동창 문진 증정, 올해의 이화인 소개, 신입 동창 소개, 서기보고 및 회계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15회 한상혜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학과 동창회

동창을 추대하고, 새로운 동창회 임원진 구성을 일임하였다. 한상혜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사학과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각오와 비전을 밝히고 동창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및 참여를 당부하였다. 여러 세대의 동창들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될 동창회 활동에 대한 기대와 동창회 발전의 염원을 담아 교가를 제창하면서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 __ 함승희(78)

김동철 원로 교수와 오찬모임

커미부 동창회 21기 신임임원진은 김동철 원로 교수의 초청으로 지난 7월 6일(목) 마리한정식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다.



김동철 원로 교수

동양화과

회장 __ 이숙진(85)

김보희 교수 퇴임을 축하와 격려

현대 한국채색화에 큰 변화를 이끌며 활동한 김보희(74) 교수의 개인전 '19702017김보희' 전시회가 6월 1일(목)부터 10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 교수의 모교 재직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수많은 제자와 동료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오프닝 리셉션에서는 동창회 주관으로 간단한 퇴임식을 진행하였고, 김보희 교수의 1970년대 작품부터 최근



김보희 교수 정년기념 개인전에 참석한 동양화과 동창들과 김 교수의 제자들

작품까지 수록한 기념 화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모교 동양화과 이종목 교수의 작품이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6월 10일(토)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시와 연계되어 작가와의 대화가 있었다.

조소과

회장 __ 이선화(81)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일정 논의

조소과 동창회는 6월 1일(목) 모교 뮤지엄 카페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짚



제20회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참가자들

어보며 2017년 주요 사업 계획의 하나인 1,300여 명의 조소과 동창회 주소록을 정비하였다. 또한 바자회, 제34회 이화조각전, 졸업작품전, 비전 이화 미술인전, 이화인의 밤 행사 등 하반기 일정을 논의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선화 회장은 8월 8일(화) 제20회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김영란(79) 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이천 설봉공원을 찾아가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생활미술과

회장 __ 윤자윤(85)

시각디자인전공·영상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 열려

6월 16일(금)부터 21일(수)까지 ECC B4 극장에서 시각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 'VISUAL VOYAGE 2017'이 열렸으며, 6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조형예술관 A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영상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이 열렸다.



영상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이 열린 이화아트센터

장식미술과(패션)

회장 __ 곽미지(87)

파리 루브르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2017 국제패션아트전시회'에 작품 출품

7월 22일(토)부터 28일(금)까지 프랑스 파리 루브르장식미술관에서 열린 '2017 국제패션아트전시회(International Fashion Art Exhibition in Paris)'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모교 박선희(88, 패션디자인연구소장) 교수가 총괄예술 감독으로 임명되어 행사를 진행했으며, 패션디자인전공 김혜연(79)·김정혜(80)·주보림(93) 교수와 함께 20여 명의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열린 '2017 국제패션아트전시회'에 참여한 장식미술과(패션) 동창들

무용과

회장 __ 윤덕경(76)

부회장, 기대표, 전공별 대표 등 새롭게 임원진 꾸리고 향후 일정 논의

6월 18일(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무용과 동창



프리마 호텔에서 임원 모임을 가진 무용과 동창회

22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올해 3월 4일(토) 새롭게 동창회장에 취임한 윤덕경(10기, 서원대학 교수) 동창의 취임인사와 임원 소개가 있었다. 임원은 무용과 졸업생 11기부터 30기까지 20개 학년의 기대표(학년별 1인. 총 20인)를 선정하여 앞으로 무용과 동창회의 활발한 활동과 회원 관리 및 소식 전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8월 20일(일) 프리마 호텔에서 윤덕경 회장 등 24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모임이 열렸다. 9월에 있을 바자회, 12월에 있을 이화인의 밤과 무용과 50주년 기념행사 공지 등 하반기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6인의 부회장을 선출, 공표하였다. 이날 선출된 부회장은 서영님(78, 12기)·한명옥(79, 13기)·김미경(81, 15기)·조기숙(85, 16기)·강혜련(85, 19기)·권금희(86, 20기) 동창이다.

그 밖에 주요 업무를 담당할 6인의 운영위원과 각 학년 기대표에 협력할 수 있는 전공별(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대표 선정하였고, 지방/해외에 있는 동창을 포함하여 50기에 달하는 무용과 동창의 주소록과 연락망 구축, 연말 소식지 발행 준비 등을 논의하였다.

특수교육과

회장 __ 한은주(79)

'사은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 개최

6월 7일(수) 저녁 6시 30분에 ECC 내 케세이호에서 퇴임 교수 및 현직 교수들을 모시고 '사은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40여 명의 동창들이 바쁜 5월을 지나고 6월 초에 모교를 방문하여 은사께 인사드리고 동창들과 함께 식사와 건배를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2016년 1학기와 2017년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이어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하여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에 각각 학생 한 명에게 15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은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의류직물학과

회장 __ 최비숙(80)

제3회 문화탐방으로 보그 전 관람

제3회 문화탐방으로 8월 22일(화) 한가람미술



제3회 문화탐방 행사로 보그 전을 관람한 의직과 동창들

관에서 'VOGUE like a painting 전'을 관람하였다. 세계적인 잡지 《보그》의 125년 아카이브에서 엄선한 패션 사진과 그에 영감을 준 명화를 함께 전시하여 의류직물학과 졸업생에게 특히 익숙한 주제로 다가왔다.

도슨트의 해설 1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흥미 있는 시간을 보낸 후 전시에 대한 감상 등 담소를 나누고 9월 문화탐방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문화탐방 행사는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창들이 참가하여 확고한 월례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식품영양학과

회장 __ 정조인(83)

모교 신축기숙사에 우선 배정 룸 후원

8월 30일(수) 모교 신축기숙사(E-House) 봉헌식이 있었는데,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영양학과 우선 배정' 1인실 두 개를 후원하였다. 이는 식품영양학과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최수주(75) 전 회장과 정조인 회장이 봉헌식에 참석하여 선배 동창들의 후원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식품영양학과는 지난해 2월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여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모금한 바 있다.



모교 신축기숙사 봉헌식에 참석하여 기부자 기념판 앞에선 정조인 회장(왼쪽)과 최수주 전 회장

이화 창립 131주년 소장품 특별전 '청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관장 장남원, 중문 85)은 9월 18일(월) 이화 창립 131주년을 기념하여 소장품 특별전 '청자'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무문청자를 비롯하여 음악, 양각, 철화, 상감, 상형, 투각 등 고려를 대표하는 여러 장식기법과 기종을 망라한 소장품 200여 점이 소개된다. 또한 고려의 전통을 재현한 이화여대 도예연구소 제작품의 일부도 선보인다.

일시 : 9월 18일(월)부터 12월 30일(토)까지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관
시간 : 월~토 9:30~17:00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9:30~19:00 / 휴관 : 일요일 및 공휴일
관람료 : 무료

남가주(LA) 지회

회장 _ 장경해(피아노 75)

도자기 체험과 한여름 음악 축제

6월 24일(토) 필렌 예술촌에 자리한 예술사랑(Love of Art)에서 일일 도자기 공방 체험 행사를 하였다. 예술사랑은 김성일 씨와 홍비 씨 작가 부부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과 전시장이 있는 곳이다. 동창 40여 명이 참석하여 홍비 씨의 지도하에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동창들이 만든 도자기 작품은 준비된 가마에 직접 구워서 완성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곳곳에 예술적 낭만이 가득한 예술사랑에서 시원한 바람도 쐬면서 자연과 더불어 야외에서 동창들과 멋진 하루를 보냈다.

점심은 김성일 도예가가 구워준 푸짐한 갈비, 꽁치 바비큐와 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 임원들이 준비한 반찬거리로 도자기 만들면서 소비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 후에는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서정숙(생미 79, 녹미회 회장) 동창과 양문선(의직 07) 동창이 참여한 남가주 중견 여류작가전을 참관하였다.

8월 12일(토)에 남가주 동창회에서 주관한 '한여름 열린 음악회 축제'가 320여 명가량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모교 동영상을 상영하고, 장경해 회장의 인사말씀, 김희숙(약대 62) 목사의 축복 기도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번 행사는 회장이 음악 전공자인 만큼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하여 새로운 장르의 음악, 댄스공연 및 오락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참석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좋은 행사였다고 찬사를 받기도 했다.

1부 순서는 수필가 협회 회장인 김화진(사회과교육 74) 동창의 사회로 피아노 트리오, 관현악 이중주, 독창, 클래식과 팝의 크로스오버 등의 연주가 이어지는 멋진 음악회였다.

2부 순서는 서운봉(화학 64) 동창의 남편 이영규 목사의 식사기도 후 푸짐한 점심식사를 들고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진행으로 화려하고 멋진



한여름 열린 음악회 축제에 참석한 남가주 동창들

댄스공연, 장기자랑, 오락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지인혜 (피아노 71) 동창의 반주로 모교 교가 제창을 한 후에 마무리되었다. 이 음악회에 참여하여 멋진 공연을 해준 이화여대 동창합창단(지휘:이종헌, 반주:주희정(피아노 08))을 비롯, 김봉덕(체육 60)·양정남(간호 60)·김선규(심리 66)·이영아(커미부 66)·권영애(간호 72)·정은옥(관현 72)·정민경(불문 76)·김경민(작곡 95)·윤승경(관현 99)·김종숙(성악 00)) 동창에게 감사드린다.

시인이며 O.C.모임 회장인 박광순(기독 64) 동창이 O.C. 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담당해 주어 참석한 모든 이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으며, 남가주 동창회의 최고 연장자인 동양순(영문 44) 동창이 참석해 주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 음악회를 계기로 남가주에 거주 중인 많은 이화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동창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남가주 동창회의 밝은 앞날을 느낄 수 있었다.

뉴욕 지회

회장 _ 박영숙(경영 86)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에 박차

6월 17일(토), 뉴저지에 위치한 조문경(영문 86) 동창 사무실에서 북부 뉴저지 모임이 있었다. 그 지역 거주 동창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었고, 서진희(기독 99) 동창이 이끄는 특강 '요가로 건강을 다져 보세요'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임 이후에는 김현우(서양 82) 동창의 집으로 옮겨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지 봉투 작업 겸 총회준비위원회의를 가졌다.



박영숙 회장의 집에서 바비큐 모임을 가진 뉴욕 지회 동창들

6월 30일(금), 해마다 한 번씩 발간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지를 2017년 총회 개최지인 뉴욕 동창회에서 5,000부 발간하여, 전 미주에 배포하였다.

7월 15일(토), 박영숙 회장 집에서 40여 명의 동창과 이화 사위가 모인 가운데 바비큐 모임을 하였다. 이 모임에서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Fund Raising을 비롯, 탤런트쇼, 구디백 준비, 관광 준비 등 각 부서의 의견 조율이 있었다.

8월 17일(목), 해외취재에 뽑혀 8월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모교의 이대학보사, Ewha Voice, EUBS의 기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희망을 나누고 학교 소식을 전해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장학금 신청을 한 가운데 곽복향(약학 64) 장학위원장과 남후남(약학 62) 장학위원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서예인(컬럼비아 대학 대학원에 진학), Daniel Cho(브라운 대학 재학 중) 두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들에게는 각각 3,000달러와 2,000달러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7월 4일(화) 김옥지(생미 68)

동창이 영면하였다. 김 동창은 '빛과 생명을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서울과 뉴욕에서 40년간 작품 생활을 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회장 __ 성명숙(조소 83)

동창회 활성화를 도모해

8월 26일(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박혜연(영교 91) 씨의 코라야(Koraya)라는 레스토랑에서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선선한 늦여름의 바람과 함께, 총 11명의 선후배들이 참석해 주었다. 소소한 일상 나눔은 물론, 앞으로 더 나은 모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어권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유한나(독문) 동창은 자신의 독일 생활 경험담이나 특기 등을 소개해서 작은 책자로 출간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우리 지회는 앞으로도 친목도모를 모임의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



더 나은 모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멜버른 지회

회장 __ 박혜진(독문 97)

2017년 2사분기 정기 모임 개최

6월 15일(목) 멜버른의 Mahn Doo 레스토랑에서 8명의 동창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들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뉴질랜드에서 3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정은재(장미 99) 동창이 이제 5개월이 된 둘째아이와 함께 참석하여 더욱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고, 멜버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안수산(영문 84) 동창이 한인 여성 직장인을 지원하고 멘토가 되어 주는 KOWIN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화학 95) 동창은 Equity Analyst로서 주식투자에 종사해 오다 곧 귀국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전해서 모두 박 동창과의 헤어짐을 서운해 하였다.

9월 14일(목) 13년 만에 가장 추운 9월로 기록되고 있는 중에 정은재 동창의 집에 모여 오붓한 점심 모임을 가졌다. 노지희(국악 93)·박성혜(기독 95)·박혜진·정은재·신은미(사회 99, 총무)·오윤



정기모임을 개최한 멜버른 지회

미(피아노 04) 동창 등 총 6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자선 클래식 콘서트를 마친 오윤미 동창을 축하하였고, 12월 예정의 송년 동창 가족모임을 계획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밴쿠버 지회

회장 _ 강호정(경영 73)

2017년도 하계 야유회

7월 28일(금), 2017년도 이화동창 하계 야유회를 Hume Park에서 50명 이상의 동창과 많은 이화 사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즐거운 게임과 아름다운 교제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하계 야유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밴쿠버 지회

보스턴 지회

회장 _ 박순혜(국문 73)

머그 페인팅으로 즐거운 시간 나눠



머그 페인팅으로 예술적 감각을 뽐낸 보스턴 지회 동창들

6월 동창회는 갑작스레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동창이 많아 아쉬운 모임이었다. 8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자리에서 피어나는 선배들의 모교 사랑, 동창회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어 머그 페인팅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쉽고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김종희(조소 71) 동창은 손주들을 위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그려 넣었고, 신은경(법학 88) 동창은 남편과 같이 마실 커플 잔을 하트 무늬로 멋지게 그렸다. 박순혜 회장의 남편이 성경구절을 넣어서 디자인한 컵과 박영복(영문 61) 고문의 꽃무늬 부부 컵은 더욱 정감이 넘쳤다.

조기교육으로 탁구를 배웠다는 박영복 고문과 함께 복식으로 탁구도 쳤는데, 점수보다는 서로 실수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어느새 5시가 되어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마치고 가슴마다 따스한 동창애를 가득 채운 채 각자 집으로 향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곽정연(독문 76)

매월 정기 모임으로 친목 도모

6월 3일(토) 정오, 밀피타스에 소재한 한식당 장수장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송명희(융합보건 86) 동창이 체리 농장에서 여러 종류의 체리를 주문해 와서 맛있게 시식했고, 모임 후에는 정은재(법학 83) 동창이 커피와 빵을 후식으로 준비해 동창들 모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7월 1일(토) 정오, 힐스버러에 위치한 곽정연 회장 집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갈비 바비큐로 점심식사를 하며 동창들과의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주된 회의 내용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것으로, 총회 신청서를 배부하고 신청서도 함께 작성했다. 모임 이후에는 탤런트쇼에서 할 뮤지컬을 연습하였다.

8월 5일(토) 정오, 8월 모임은 모건 힐에 소재한 송명희 동창 집에서 4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모건 힐에는 농장들이 여럿 있고 또 다양한 농작물과 과일들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파는 Farmers Market도 많다. 정기 모임 전에 많은 동창들이 뜨거운 태양 빛 아래 비타민 D를 듬뿍 받으며, 각자 가고 싶은 곳에 들러 싱싱한 과일들을 사는 재미도 있었다. 특히 복숭아 농장에서 구입한 복숭아는 동창들에게 옛날 추억을 안겨 주었다, 손만 대면 껍질이 저절로 쑥쑥 벗겨지는 그야말로 달콤하고 시원한 복숭아로 모두들 화기애애한 시간을 만끽했다.



8월 정기모임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시드니 지회

회장 __ 이전희(가정 72)

알뜰 시장과 함께한 동창모임

5월 13일(토) Gorden에 사는 이전희 회장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화기애애하고 풍성한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개최된 알뜰시장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책, 가방, 도자기, 그릇, 옷, 냄비–이 제공되었으며, 서로 싸게 사고파는 가운데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매출액은 모두 기부금으로 적립되었다. 이어서 송홍자(국문 65) 동창의 건강을 위한 '기공 운동' 강의가 있었고,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한 송민정(교공 87) 동창이 소개되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창모임에 참석한 김영숙(약학 68) 동창, 예전보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장기숙(사회 64) 동창 등 선배 동창의 건재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여행을 다녀온 임미경(영문 88)·정혜원(사학 86) 동창의 재미있는 여행담도 소개되었다.



알뜰시장을 열고 기부금을 적립한 시드니 지회

8월 12일(토) Gorden 소재 Praus라는 황귀연(생미 88) 동창의 아담한 Shop에서 25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동창회가 열렸다. 정성과 맛이 듬뿍 담긴 점심식사 후에 '건강한 음식과 요리방법', '호주에서 변화된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Free Talking 시간을 가져 매우 유익한 경험을 서로 나누었다. 건강에 좋은 손쉬운 요리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배우면서, 선후배가 같이 친목을 다지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 장명옥(영문 81)

야유회와 생일 축하 모임

6월 11일(일) Duluth에 있는 'Shorty Howell Park'에 모두 56명이 참석해 '이화가족 야유회'를 가졌다. 장무성(융합보건 71) 동창의 개회 기도와 이화합창단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새로 나온 백용명(약학 68)·이미애(국제사무 89) 동창과 오랜만에 나온 공영희(약학 61)·임철자(생명 63)·강성희(문정 68)·남경숙(영문 68)·변명섭(식영 68)·김현순(생명 73) 동창을 환영하였다. 6월이 생일인 정문자(의학 66) 동창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차희숙(체육 77) 동창의 동작을 따라 스트레칭 시간을 가졌다. 동창들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엔 정준희(영문 43) 동창이 6월 10일(토) 98세로 생을 마친 슬픈 소식을 전했으며, 시문학회 이사장으로 있는 정문자 동창이 6월 25일(일) 5시 'First Baptist Duluth Church'에서 열릴 '시와 음악' 행사를 광고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김정희(약학 79) 동창의 재미있는 퀴즈와 Raffle 추첨으로 준비된 생활용품을 선물로 나누었다.

이번 야유회에는 이화 사위들이 많이 참석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한 Silent Auction(15명이 물품 기증)이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352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다소 더운 날씨였지만 정과 사랑을 나눈 귀한 시간이었다.

7월 9일(일) 모임은 '서라벌 식당'에서 30명의



8월에 생일 맞은 동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애틀랜타 지회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정순(체육 49) 동창의 개회기도에 이어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송문희(생명 72) 동창, 한국에서 부친상을 마치고 온 유찬희(커미부 78) 동창을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곧이어 윤미영(피아노 84) 동창의 '재정설계강좌'가 있었다. 식사 후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광고와 신청서를 배포하고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8월 13일(일) 26명이 참석하여 김혜선(약학 75) 동창의 개회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5월에 화상사고를 당하고 회복 중인 조성숙(가정 64) 동창이 나와 모두 반가워하였고, 8월에 생일을 맞은 성정순·장윤심(식영 70)·이복희(섬예 75)·최인옥(체육 87) 동창을 축하하였다. 특별히 올해 구순을 맞은 성 동창이 점심식사를 내고, 건미회(체대 모임)에서는 생신축하 떡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었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케이크 커팅 시간도 가졌다.

장학회 부회장인 송문희 동창이 한미장학회 장학금수여식(애틀랜타 지회에서 매년 1,000달러씩 지원)이 8월 19일(토)에 있음을 고지하였고, 골프회 회장 차희숙 동창이 9월 11일(월)에 열릴 제12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배 골프토너먼트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에드먼턴 지회

에드먼턴 지회

회장 __ 조용옥(국문 73)

젊은 동창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다리며

8월 24일(목), 여느 해처럼 여름 공원 바비큐 모임을 하는 대신 조촐한 양식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동창회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해외 작은 도시 지회의 공통 특징은 나이 어린 동창이 사업과 자녀 키우는 데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 지회는 이화를 졸업한 지 50년이 넘는 선배들의 동창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다. 연로한 동창들은 모두 몇 차례 회장을 맡아서 연임한 경력이 있다. 최영린(수학 62) 초대 회장의 말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대와 함께 부부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에드먼턴 지회는 에드먼턴의 한국어 학교에 매해 보조금을 보내서 격려하는 데 앞장 서기도 했다.

에드먼턴 지회에서 젊은 동창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며 잠시 동창회를 한두 해 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많지는 않아도 그동안 정성껏 도네이션한 것, 회비 모은 것, 북미주지회연합회 회비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이화 총동창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한 해 어수선한 모교의 소식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동창들이 자랑스러웠고, 고

국 방문 때마다 모교를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이 되어 알찬 열매를 맺는 믿음의 동산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교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모교에서 보낸 학창 시절의 그리움으로 언젠가는 중년된 동창이 다시 동창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을 믿는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김성혜(융합보건 88)

상반기 임원 활동 마무리

6월 11일(일)에 워싱턴DC 지회 임원들은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지고, 성공적이고 한층 성숙된 지회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였다. 하반기 활동으로는 새 동창 환영회, 봉사 활동, 연말파티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꾸준한 활동을 계획 준비하여 지회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Sunshine Committee는 지속적으로 지회 동창들 가운데 병중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동창을 방문하고 연락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7월에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로 이도실(영문 60) 동창을 2017년 공천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회장 후보 추천 자격이 있는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들은 9월 말에 모임을 갖고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10월 말 뉴욕에서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많은 동창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이은수(동양 78)

긴 방학을 앞두고 마지막 모임

방학 전 마지막 동창모임을 5월 9일(화) Javanegra에서 가졌다. 대부분의 동창들이 아이들과 함께 긴 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한동안 못 볼 것을 아쉬워하며 정겨운 만남을 나눴다.



긴 방학을 앞두고 모임을 가진 자카르타 지회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 __ 임영미(유교 83)

타향 땅에서 만나는 고국의 숨결

6월 28일(수) Lockkeepers Restaurant에서 만남을 가졌다.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 사위를 보고 손주들을 본 동창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기뻐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7월 26일(수)에 Korea House Restaurant에서 Cleveland의 Asian Evergreen Apt에 거주하는 한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책거리 관람을 한 클리블랜드 지회

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고운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점심을 들며 동심으로 돌아간 듯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도 꼭 만날수 있기를 서로 약속하며 가슴 뭉클한 작별을 하였다.

8월 30일(수)은 Cleveland Museum of Art 내의 Provenance Cafe에서 점심을 나눈 후 8월 5일(토)부터 11월 5일(목)까지 석 달 동안 열리는 특별전인 '책거리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였다. 책거리란 일거리, 이야깃거리처럼 책을 비롯하여 문방구, 도자기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그린 그림을 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아시아관 큐레이터 임수아 씨의 조선 후기 정조로부터 비롯된 책거리의 탄생 배경과 유행에 따른 자세하고도 흥미진진한 작품설명은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욱이 멀리 미국 땅에서 동창들과 함께 옛 한국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음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파리 지회

회장 __ 홍성부 (생미 84)

봄맞이 피크닉 개최

재불이화동창회는 6월 3일(토) 뱅센 숲에 위치한 파크 플로랄 드 파리(Parc Floral de Paris)에서 봄맞이 이화가족 피크닉을 개최하였다. 봄 피크닉은 겨울 송년 모임과 더불어 파리 지회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로, 임원진이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행사이다. 홍성부 회장을 중심으로 각 임원진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다양한 한식과 함께 오랜만에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열악한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을 비롯한 이화인 및 가족 등 총 50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점심 식사 나눔에 이어 한연미(정외 90)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임원진이 준비한 경품 추첨 행사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017년 봄 피크닉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이순희(불문 61) 동창

이순희 동창이 6월 11일(일) 프랑스 L'Association des Amis de L'ile Sainte Marguerite a Cannes에서 개최되는 서양화 전시회 추상화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이 동창은 2016년에도 같은 전시회에서 2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순희 동창

조애진(커미부 66) 동창

조애진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모유수유넷은 8월 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WHO의 모유수유 관련 지침과 한국모유수유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일곱 자녀를 모유수유로 키운 신정민 씨를 제9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조애진 동창

김광희(화학 67) 동창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이기도 한 김광희 동창의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40년 근속 축하 파티가 있었다.

김경자(약학 68) 동창

서양화가 김경자 동창이 9월 4일(월)부터 19일(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M-Galley에서 '김경자 초대전'을 가졌다.


김경자 동창

문숙재(가정 68) 동창

6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열린 파리의 루브르 갤러리와 요셉 갤러리의 'Art Shopping Paris Mai 2017'에 6점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였다. 문숙재 동창은 모교 가정관리학과 교수로 은퇴 후 아령회 사진반에서 찍은 사진들이 파리 전시회 작가의 눈에 띄어 아마추어로서 국제사진전에 출품하게 되었다.


문숙재 동창

양수화(종음 71) 동창

양수화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글로리아오페라단이 창단 26주년을 기념하며 오페라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를 6월 9일(금)부터 1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양수화 동창

이상화(영문 71)·방희정(영문 72)·장필화(영문 74)·김말복(무용 79)·한자경(철학 81)·조기숙(정외 82)·김미현(국문 88)·백지연(국제사무 94)·한혜원(국문 99)·최영은(정책대학원 08) 동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모교 동창들의 책이 다수 선정되었다. 선정된 책은 다음과 같다.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상화 동창과 모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장필화 동창의 『페미니즘, 리더십을 디자인하다』, 모교 심리학전공 명예교수 방희정 동창의



이상화 동창　장필화 동창　김말복 동창



한자경 동창　조기숙 동창　김미현 동창



백지연 동창　한혜원 동창　최영은 동창

역서 『Bayley-Ⅲ 임상적 활용과 해석』, 모교 무용과 교수 김말복 동창의 『현대무용사상: 표현과 해체』, 모교 철학과 교수 한자경 동창의 『심층마음의 연구: 자아와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아뢰야식』, 모교 국제학과 교수 조기숙 동창의 『노무현의 민주주의』,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미현 동창의 『번역 트러블: 한국소설과 문화번역』, 모교 국제사무학과 교수 백지연 동창의 『경력개발전략: 이론과 실제』, 모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한혜원 동창의 『앨리스 리턴즈: 뉴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영은 동창의 『다문화사회의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정책』.

권영애(간호 73) 동창

8월 26일(토) LA 피코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에서 권영애 동창의 세 번째 수필집 『렌트 인생』의



권영애 동창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권 동창은 현재 미주 중앙일보에서 '이 아침에'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미주 펜문학상, 한국수필 해외문학상, 경희해외동포 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곽삼근(교육 75)·오정화(영문 76)·이종희(수교 80) 동창

곽삼근·오정화·이종희 동창의 책이 '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모교 교육학과 교수 곽삼근 동창의 『현대인의 삶과 문화예술교육』은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모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오정화 동창의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와 기독교』는 인문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모교 수학교육과 교수 이종희 동창의 『학교수학과 수학적 연결성: 대한수학교육학회 2016 연보』는 자연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곽삼근 동창　오정화 동창　이종희 동창

고혜숙(조소 77)·나진숙(조소 84)·정수안(조소 84)·조미연(조소 84)·지명순(조소 87)·호해란(조소 88)·김선영(조소 89)·김정연(조소 89)·차종례(조소 92)·조은희(조소 94)·강선구(조소 99)·이민영(조소 04) 동창

7월 20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미술관 바우지움에서 너와전을 개최하였다.

김춘희(영문 78) 동창

한국 헨리 제임스(Henry James) 학회장 김춘희 동창이 제7차 헨리 제임스 국제학술대회를 7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미국과 유럽 양 대륙을 번갈아 가며 3년마다 개최되어온 헨리 제임스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춘희 동창

김영란(조소 79) 동창

8월 8일(화)부터 29일(화)까지 이천설봉공원에서 개최된 제20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에서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다.


김영란 동창

정든 이화를 떠나는 정년퇴임 동창

8월 31일(목) 4명의 동창이 정든 이화를 떠났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교에 헌신한 정년퇴직 동창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김명희(사회 74) 동창 / 컴퓨터공학전공

1987년 3월부터 30년 넘게 엘텍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컴퓨터공학 연구와 우수여성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2015년 여성 최초로 한국컴퓨터그래픽스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보과학회 공로상(2003),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2008)을 받았으며, 총 6회에 걸쳐 모교 연구비실적 우수교원에 선정되었다.


김명희 동창

김보희(동양 74) 동창 / 동양화전공

1993년 3월부터 24년 넘게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작가 양성과 한국채색화 발전에 기여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단체전을 통해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월전 미술상(1992), 대한민국미술대전 3회 특선(1981-1983) 외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보희 동창

정덕애(영문 74) 동창 / 영어영문학부

1991년 3월부터 26년 넘게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적 수준의 영어영문학자 양성과 아시아적 지역 특성과 여성적 정체성을 살린 영미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와 한국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덕애 동창

홍기숙(의학 80) 동창 / 의학과

1987년 3월부터 30년 넘게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전문 의학도 양성과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했다. 1998년 모교 의과대학 임상교학부장, 2003년 이대동대문병원 교육연구부장, 2011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부원장, 2013~2015년 모교 대학건강센터 소장, 2010년 대한임상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홍기숙 동창

김희경(조소 79) 동창

7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도쿄 갤러리Q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희경 동창

손경미(도예 79)·김선(도예 82)·이지은(도예 85)·이재숙(도예 86)·김영은(도예 87)·서혜수(도예 88) 동창

6월 1일(목)부터 13일(화)까지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서 열린 2017 '어디서나그리미다' 전에 참여하였다.

최인순(의직 79) 동창


최인순 동창

한국황실문화갤러리의 관장으로 있는 최인순 동창은 9월 7일(목)부터 한 달간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공예전시회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 이탈리아를 밝히다'를 총괄 기획하고 예술감독으로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서울특별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 후원한다.

이경옥(체육 80) 동창


이경옥 동창

Ewha-UHS 라오스 소녀 융합건강 사업팀(책임자 이경옥)의 '라오스 소녀 융합건강 전문가 양성 및 소녀역량 강화 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Ewha-UHS 라오스 소녀 융합건강 사업팀은 이경옥(체육학) 동창을 비롯 강민아(영문 88, 행정학)·강윤희(간호 94, 간호학)·김유리(식영 92, 식품영양학)·김은미(사회 81, 국제학)·김은실(영문 80, 여성학)·김현수(사회학)·이건정(화학 85, 글로벌건강간호학)·정혜원(의학 84, 의학)·하은희(의학 87, 의학) 교수 등 총 10개의 전공으로 구성된 다학제 융합연구팀이다.

이미애(의학 82) 동창


이미애 동창

이대목동병원 교수 이미애 동창의 연구팀이 7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열린 '대한임상미생물학회 20차 학술대회'에서 2017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연구 주제는 '응급실에서 혈액배양 채혈량 모니터링이 혈액배양 양성률에 미치는 효과'이다.

강애란(서양 83) 동창


강애란 동창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일본군 '위안부'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 전시에 강애란 동창이 참여하였다. 모교 조형예술학부 교수인 강 동창은 2011년부터 여성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다.

유정희(의직 83) 동창


유정희 동창

7월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서울 서초구 갤러리 라이프에서 개인전 '초대, 너와 나에게로'를 개최하였다.

정혜영(불문 83) 동창


정혜영 동창

극단 컬티즌 대표 정혜영 동창이 늘푸른연극제에서 이만희 씨 원작 〈언덕을 넘어서 가자〉라는 작

품을 연극으로 무대에 올렸다. 8월 17일(목)부터 27일(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전회 공연 전석 매진되었다.

박은라(동양 84) 동창

7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열린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에서 참여하여 창원컨벤션센터 블루M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정혜원(의학 84) 동창


정혜원 동창

모교 의학과 교수 정혜원 동창이 '스리랑카 마타라지역 모자보건 의료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KOICA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책임자인 정혜원 동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현대아산주식회사, ㈜미래병원컨설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2020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남연숙(도예 86) 동창

9월에 괌 아트 10회 그룹전 'Pow! Wow!' 전을 괌 투몬의 The Plaza Shopping Center에서 열었으며, 10월에 괌 문화 예술청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그룹전을 CAHA갤러리에서 가진다. 한편 남연숙 동창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이며 미주 지역 괌에서 일하게 되었다.

남연숙 동창

김곡미(생미 87) 동창

연암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곡미 동창이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및 광복 72주년 기념 디자인포스터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2017 독립기념관 디자인포스터 공모전 전시회는 8월 12일(토)부터 31일(목)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김곡미 동창

이혜영(도예 87) 동창

6월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Here And Now' 개인전을 열었다.

호해란(조소 88)·조은희(조소 94) 동창

6월 30일(금)부터 7월 7일(금)까지 서울아산갤러리에서 2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성애(조소 89)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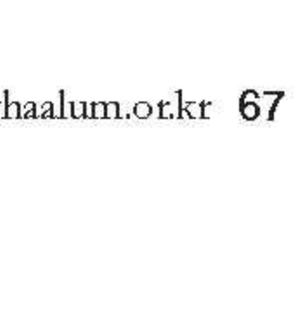

김성애 동창

6월 21일(일)부터 27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is에서 개인전 '만다라(Mandala)'를 개최하였다.

김유선(서양 89) 동창

6월 15일(목)부터 7월 14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갤러리 플래닛에서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 전을 열었다.

김정선(식영 89) 동창


김정선 동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선 동창이 광동제약이 주최하는 '제6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지난 2012년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공동 제정했으며, 대한암학회 이사회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6월 22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 태평양 암학회 및 제43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었다.

이혜정(동양 91) 동창

6월 12일(월) MBN 〈성공다큐 최고다〉(287회)에서 공간에 콘텐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간개발자로 (주)오트리스 대표 이혜정 동창의 소식이 방영되었다.


이혜정 동창

장정아(조소 91) 동창

서울과 뉴욕에서 서양화 작가로 활동 중인 장정아 동창이 미국의 세계적인 미술 매거진《ArtTour International Magazine》의 '2017 Summer Issue, Artist Spotlight'에 전 세계 5명의 작가 중 아시아권 작가로 선정되어 본지에 미술평론과 함께 다수의 작품 사진들이 수록되어 출간되었다.


장정아 동창

심기남(의학 92) 동창

'제25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학술대회 및 제14회 일한 심포지엄'에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심기남 동창의 연구팀은 '내시경절제술 혹은 복강경수술로 치료받은 조기 위암 환자들의 삶과 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심기남 동창

오수연(철학 92) 동창

드라마 〈가을 동화〉의 작가 오수연 동창이 동국대 국문·문예창작학부 조교수로 8월 27일(일) 임용되었다.

이지언(정외 92) 동창

사회복지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이지언 동창이 '201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지원 사업'의 우수논문으로 최종 선정돼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동창은 아동기 긍정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휴대폰 의존의 발달궤적을 종단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이지언 동창

천현순(독문 92) 동창

천현순 동창이 국립 경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천 동창은 2007년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천현순 동창

권혜진(의직 93) 동창

7월 25일(화)부터 31일(월)까지 서울 서초구 갤러리 라이프에서 초대전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개최하였다

김의정(의학 94) 동창

모교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의정 동창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2017년판에 등재되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인 김 동창은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냈으며 이대아동발달센터 고문, 여성정신의학회지 편집이사 및 홍보위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위원 및 홍보위원, 불안의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현경(무용 94) 동창

1995년 창단되어 한국의 창작발레를 선도해 온 서울발레시어터의 신임 예술감독 조현경 동창이

9월 16일(토)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신작 〈빨간구두〉를 선보였다.


조현경 동창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송혜영 동창이 카네기홀 전석매진 연주회 기념 송혜영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였다. 클래식 피아니스트 송 동창은 지난 3월 Weatherford College Jazz Band와 작곡가 Ric Flauding의 재즈곡을 초연하였으며, 새찬양 콩쿨의 심사위원으로서, 6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열린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유일한 한국 비평가로서 활약했다.


송혜영 동창

정효진(동양 96) 동창

'반복적 수행; 응시' 전이 7월 5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울 송파구 예송미술관에서 열렸다.

조양희(무용 96)·마승연(무용 03) 동창

9월 2일(토)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공연된 '현대무용단-탐 제37회 정기공연'에서 안무가 조양희·마승연 동창이 신작을 선보였다. 조양희 동창의 'Caution'은 타인의 신호를 부정하고 자신의 Caution Sign만이 지켜지길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추상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마승연 동창의 '미지(未知)'는 미지의 세계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은유적으로 풀어내었다.


조양희 동창

김소은(사복 98)·정수정(사복대학원 13) 동창

김소은·정수정 동창이 8월 18일(금)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데이터 활용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정 동창은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성과 교통편의가 지역사회통합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들과 가구 형태에 따른 다중집단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김소은 동창


정수정 동창

강선구(조소 99) 동창

6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분당 수호갤러리에서 개인전 '내일 완성될 이해의 초도(草圖)'를 개최하였다.


강선구 동창

김영미(성악 00) 동창

김영미 동창이 2017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조지아 칼리지&주립대학)에서 성악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영미 동창

윤진숙(동양 00) 동창

'천천히 스미다' 전을 8월 18일(금)부터 9월 14일(목)까지 유디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조남주(사회 01) 동창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조남주 동창이 제4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82년생 김지영』은 전업주부 김지영을 주인공으로 한 르포 소설로, 한국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차별과 구조


조남주 동창

적 불평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그렸다. 조 동창에게는 2,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되었다.

김순임(조소 02) 동창


김순임 동창

6월 17일(토)부터 7월 13일(목)까지 전남 여수시 갤러리 노마드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8월 19일(토)부터 9월 3일(일)까지 독일 담스타트에서 프로젝트 GNAP-글로벌노마딕트를 개최하였다.

김고은(조소 03) 동창


김고은 동창

8월 25일(금)부터 9월 7일(목)까지 수원시 대안공간 눈에서 개인전 '그림자-일상 속 순간 전'을 개최하였다.

김주희(동양 03) 동창

'어제 오늘 내일' 전이 7월 14일(금)부터 8월 17일(목)까지 서울 서초구 유디갤러리에서 열렸다.

김정은(식영 06) 동창


김정은 동창

김정은 동창이 지난 6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o Department of Chemistry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김 동창은 국내 및 미국 영양사 자격증(Registered Dietitian, R.D.) 소지자로 현재 대학에서 Human intervention을 통해 식품섭취 및 영양대사와 노화 관련 질병 상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재정(회화·판화 06) 동창

서재정 동창이 8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개인전 '조합된 장면들'을 삼청동 갤러리 가비에서 열었다.

김미영(동양 09) 동창

개인전 '웨트 온 웨트(Wet On Wet)'를 7월 5일(수)부터 25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이화익갤러리에서 열었으며, 7월 12일(수)부터 8월 6일(일)까지 학고재갤러리에서 열린 '2017 직관' 전에 참여하였다.

노은희(정외 09) 동창


노은희 동창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 박사과정 노은희 동창이 6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양일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학생 포스터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노은희 동창은 '탈북 대학생의 성공적 취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설립되어 65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학회다.

박보미(의학 09) 동창


박보미 동창

예방의학교실 기초전공의 및 박사학위 과정생 박보미 동창이 6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0회 미국역학회 학술대회(50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Epidemiologic Research)'에서 최우수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수상했다. 박보미 동창은 'The effect of multimorbidity of non-communicable disease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mparison of multimorbidity adjustment models'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인아(식공 12) 동창


김인아 동창

식품공학전공 제품설계/감성공학연구실 박사과정 김인아 동창이 Institute for Perception(IFP)에서 주관한 '2016 IFP Student Award'에서 우수학생 1인으로 선발됐다.

'IFP Student Award'는 감각과학, 마케팅, 심리학, 경제학 및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해 우수한 성과가 입증된 학생 1인만을 국제적으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IFP Course 참석 관련 여비를 전액 지원한다.

나혜윤(법학 13) 동창


나혜윤 동창

나혜윤 동창이 대검찰청 선정 6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됐다. 나 동창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부 검사로 근무 중으로,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후 고소가 이뤄진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성폭력 사범을 지난 6월 구속기소하였다.

유아름(화학나노과학 14) 동창


유아름 동창

박사과정 유아름 동창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7년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2011년 처음 시행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2년 동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박사과정은 1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3년 추가지원)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박효진(피아노 16) 동창


박효진 동창

박효진 동창이 7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모교 음악대학에서 개최된 한국피아노학회 주최의 아시아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페스티벌(Asia International Piano Academy & Festival)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콩쿠르 협주곡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박 동창은 현재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Master 과정에서 수학 중이며, 이번 콩쿠르 수상으로 500달러를 부상으로 받았다.

나랑게렐트 바트서열(Narangerelt Batsoyol, 컴공 17) 동창


나랑게르트 바트서열 동창

컴퓨터공학전공 지능형네트워크시스템연구실 석사과정 나랑게렐트 바트서열(Narangerelt Batsoyol) 동창이 Google에서 주관한 '2017 Asia-Pacific Women Techmakers Scholars Program'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아니타 보그 협회와 구글이 공동 주관하는 'Women Techmakers Scholars Program'은 공학 분야 아시아 여성 리더를 후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75명 중 국내의 경우 총 10명이 선발되었다. 최종 선발된 75명에게는 1,000달러의 상금과 Google 워크숍 프로그램 초청 혜택이 제공된다.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분 중,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바람의 날개 정연희(국문 58)

정연희 지음 / 개미



● 소설가 정연희 동창이 올해 등단 60주년을 맞아 신작 소설집 『바람의 날개』를 펴냈다. 정 동창은 한국 소설가협회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다.

새벽에 생각하다 천양희(국문 66)

천양희 지음 / 문학과지성사



● 올해로 등단 52년을 맞은 시인 천양희 동창이 8번째 시집을 펴냈다. 천 동창은 이번 시집으로 마음의 매듭이 풀어지고 상처가 꽃으로 피었다고 말한다.

흐릿한 하늘의 해 서용좌(독문 67)

서용좌 지음 / 푸른사상사



● 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 서용좌 동창이 장편소설 『흐릿한 하늘의 해』를 출간하였다. 서 동창은 이화문학상, 광주문학상, 국제펜문학활동상 등을 수상하였다.

갈대와 억새풀 원사덕(약학 68)

원사덕 지음 / 순수문학



● 원사덕 동창이 시집 『갈대와 억새풀』을 펴냈다. 「까치밥」, 「물새야」, 「한낮의 고양이」, 「꽃의 시샘」, 「모주 지게미」 등 주옥 같은 시편이 4부로 나뉘어 수록되었다.

어머니를 떠나기에 좋은 나이 이수경(영문 84)

이수경 지음 / 강



● 소설가 이수경 동창이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18년 만에 펴낸 첫 소설집이다. 단편 8편이 수록된 이 소설집으로 올해 '무영문학상'을 수상했다.

강치의 바다 신아연(철학 87)

신아연 지음 / 책과 나무



● 강치는 오래 전 독도에 살았던 바다사자로 일제 강점기 때 멸종되었다고 한다. 신아연 동창은 이 강치를 애도하며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를 그려내고 있다.

악녀의 재구성

홍나래(국문 93)·박성지(국문 94)·정경민(국문 97)

홍나래 · 박성지 · 정경민 지음 / 들녘



● 열녀 등 후대에 귀감이 되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가부장 체제라는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거쳐 살아남은 것들이다. 이 책은 여러 설화집의 서사 속 '악녀'를 재조명해 본다.

그레이스와 함께 글쓰기 박성혜(기독 95)

쥬디 맥팔레인 지음 / 박성혜 옮김 / 하늘정원



● 아마존 편집장 선정 '이달의 최고의 서적'으로 뽑혔다. 다운증후군 환자인 그레이스가 저자 쥬디와 함께 작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

동안탄력

고귀한 불가리안 로즈 오일과 25가지 천연유래성분들을 촘촘히 채워
탱탱함이 꺼지지 않는 동안탄력의 힘을 경험하세요. 보습, 미백, 생기, 영양까지 다 잡은
동안탄력크림, 아이소이 인텐시브 에너자이징 크림

주름개선 / 미백 기능성 화장품



60ml / 69,000원

천연유래 기능성 화장품 아이소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최초
미국 EWG Verified™ 인증

독일 더마테스트
EXCELLENT 등급 획득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홀푸드 입점

isoi 독일연구소만의
블렌딩 노하우

---

isoi 고객센터 ☎ 1800-9100 www.isoi.co.kr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 총동창회의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79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0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 김영주 이대총동창회)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이사를 하실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

